



코스피 2080.44 (-5.65)	코스닥 670.82 (-16.47)
금리 (연평균) 1.95 (-0.02)	환율 (원/달러) 1133.90 (+5.60) (12일)



[뉴스]
천덕꾸러기 된 40~50대
이중부양에 희망퇴직
사지 물리는 '사오정'
02

대기업 “자금조달 줄여라”... ‘투자빙하기’ 오나

10대그룹 내년 회사채만기 23조... 발행수요 7.5조

설비투자 2분기부터 감소세 무디스, 韓성장률 2.3% 예상
제조업 가동률 73%까지 하락 투자 보다 리스크 관리 집중

“한국 기업이 지난 3년여 동안 차입금을 감축해 왔지만 최근의 무역분쟁 심화, 기업의 공격적인 재무정책, 규제위험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8월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밝힌 ‘예언’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달 31일(현지 시각) 글로벌 최대 신용평가사인 S&P가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지난 1일 무디스도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등급은 Baa1 유지)했다.

글로벌 경기 한파에 기업들은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은 2015년 4분기 이후 12

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지만 설비투자는 올해 2분기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서 2분기 -5.9%, 3분기 -13.7%로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며 경제성장률마저 끌어 내리고 있다. 무디스는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3%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투자유인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 예

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기업이 2019년 외부 차입을 줄일 것이 유력하다. 제조업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추가 투자에 나설 가능성도 크지 않다. 2010~2011년 80%를 웃돌았던 제조업 가동률은 2017년 72.6%까지 하락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박승호 경제분석관은 “수출 증가로 생산이 확대되더라도 가동률이 특정 수준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기업들이 투자를 유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올해 금리인상 기조에 따른 조달비용 상승 이전에 선제적으로 자금조달이 이뤄진 점도 영향을

<10대그룹 회사채 발행수요 점검>

(단위 : 조원)

그룹 (조원)	발행수요		만기도래 (11/18~12/19) (a)	연평균 투자계획 (b)	CAPEX 3년 가중평균	EBITDA 3년 가중평균 (c)	NCF 3년 가중평균 (d)	현금성자산 2017
	EBITDA 기준 (a+b-c)	NCF기준 (a+b-d)						
삼성	(12.4)	(1.7)	1.7	60.0	49.4	74.1	63.5	106.4
현대차	(6.3)	2.2	2.4	4.6	13.3	21.9	13.5	59.5
SK	(5.6)	3.9	6.0	26.6	20.3	38.2	28.7	33.0
LG	1.8	6.0	2.8	19.0	13.8	20.0	15.8	14.9
롯데	5.2	7.8	2.8	3.1	4.2	7.6	5.1	15.7
포스코	2.4	3.7	1.6	9.0	3.1	8.2	6.9	11.9
GS	(1.4)	1.9	2.0	4.0	3.5	7.4	4.1	6.7
한화	(0.5)	(3.2)	2.0	4.4	3.8	7.0	9.6	6.3
신세계	2.2	2.6	0.9	3.0	2.0	1.8	1.3	0.7
CJ	7.1	8.5	1.0	12.0	5.1	5.9	4.5	3.6

/신한금융투자

줄 전망이다.

12일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등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회사채 시장에서 주요 10대 그룹(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포스코, GS, 한화, 신세계, CJ)의 외부 자금조달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 한 관계자는 “올해 어느 정도 갭을 쌓아놓은 상태라 보유 현금 등을 합치면 충분히 버틸 수 있다. 예상보다 금리 레벨이 더욱 낮아지면서 2019년 만기도래 물량 중 일부를 차환하기 위한 자금도 이미 마련했다”면서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계획을 밝혔다.

그렇다면 대기업의 회사채 발행니즈는 얼마나 줄어들까.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10대 그룹의 회사채 발행 니즈를 추정할 결과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EBITDA) 기준으로 7조 5000억원 가량으로 발행 수요가 감소할 전망이다. 순영업활동현금흐름(NCF) 기준으로는 31조 7000억원 규모다.

그룹별로는 삼성그룹의 발행수요가 가장 많이 준다. EBITDA 기준 발행수요는 -12조 4000억원이다. NCF 기준으로는 -1조 7000억원 가량이다. 삼성그룹의 향후

(2018년 11월~2019년 12월) 만기도래액은 1조 7000억원이다. 연평균 투자 계획은 60조원. 현금성자산은 106조 4000억원에 달한다.

다음으로는 현대차그룹으로 EBITDA 기준으로 -6조 3000억원 줄어든다. 다만 NCF 기준으로는 2조 2000억원의 발행수요가 있다. 현대차의 투자계획은 4조 6000억원, 현금성자산은 59조 5000억원이다.

SK의 발행수요는 EBITDA 기준, NCF 기준 각각 -5조 6000억원, 3조 9000억원이다. SK그룹의 내년 회사채 만기도래액은 6조원,

현금성자산은 33조원에 달한다.

GS그룹은 EBITDA 기준 -1조 4000억원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NCF 기준으로는 1조 9000억원 발행수요가 있다.

한화는 EBITDA 기준 -5000억원, NCF 기준 -3조 2000억원 수요 감소가 예상된다.

반면 롯데는 EBITDA 기준 5조 2000억원의 발행수요가 있다. NCF 기준으로는 7조 8000억원의 자금조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CJ는 EBITDA 기준 7조 1000억원, NCF 기준 8조 5000억원의 자금조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신세계와 포스코는 EBITDA 기준 각각 2조 2000억원, 2조 4000억원의 발행 수요가 있다. NCF 기준으로는 2조 6000억원, 3조 7000억원의 수요가 있다.

신한금융투자 신용연구원은 “대규모 투자 계획은 선안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를 모두 감내 가능한 수준이다”면서 “내년 회사채 발행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분양시장 고강도 규제에도

수도권 ‘똥똥한 한 채’ 수요는 여전

서초 래미안 리더스원 최고 경쟁률 422 대 1 기록 지방은 비규제지역이 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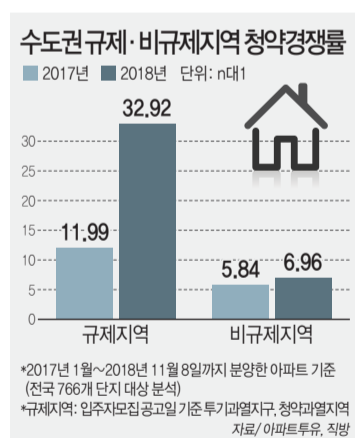
최근 2년여간 수도권 규제지역에 오히려 청약통장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등에도 ‘똥똥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여전한 모습이다. 반면 지방에서는 비규제지역이 반사이익 효과를 누리고 있다.

12일 직방이 아파트투유에 공개된 2017년 1월 1일~2018년 11월 8일 전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수도권 규제지역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3배 가량(11.99대 1→32.92대 1) 치열해졌다.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으로 지정된 분양요건이 까다로운 지역을 말한다.

문재인정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고공행진 하자 크고 작은 열두 번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 규제 수위를 높여 나갔다. 특히 지난해 ‘8·2대책’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을 지정해 대출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아파트 청약 당첨자의 일정 기간 재당첨제한 등을 시행했다.

그러나 정부의 잇따른 주택 매매 규제에도 수도권 규제지역의 청약 경쟁률이 증가하는 등 수도



권 규제지역에 대한 수요는 여전한 모양새다.

직방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규제가 강화될수록 ‘똥똥한 한 채’를 선호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서울 강남 등 인기 지역의 집 한 채로 수요가 쏠리면서 수도권 규제지역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최근 1순위 청약접수를 마감한 ‘서초 래미안 리더스원’은 최고 4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이 막히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도 전매가 불가능해 자금조달 부담이 크다. 그럼에도 강남 새아파트에 대한 대기수요와 자금력을 갖춘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며 청약자들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지방은 규제 지역에 대한 풍선효과로 비규제지역에 청약통

장이 모이기 시작했다.

같은 기간 지방 규제 지역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37.75대 1에서 13.58대 1로 3분의 1가량 내려앉았다. 이와 반대로 비규제 지역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14.05대 1에서 17.39대 1로 높아졌다.

상대적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짧고, 분양권 양도세 증과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 대전·광주·경북·대구 등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분산된 영향이다. 특히 자금여력이 있는 수요자가 몰리며 일부 분양 물량에 반사이익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청약시장의 양극화는 지속될 전망이다.

직방 김은선 매니저는 “최근 주택 시장은 정부 규제로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관망세가 커지고 있다”며 “여기에 여신규제 등 자금조달비용 부담으로 가수요가 이탈해 시장에서 가치가 검증된 인기 지역 및 유망지역에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방 역시 비규제지역에 대한 상대적 관심이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증가하는 미분양과 지역경제 약화 등으로 자족기능, 역세권, 소형면적 등의 실수요요건을 갖춘 수 있는 단지에 수요 쏠림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코스피·코스닥 하락으로 마감

1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KEB 하나은행 딜링룸이 이날 코스피, 코스닥 종가와 원/달러, 원/위안 거래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제약·바이오 주 급락으로 2,080.44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2.4% 내린 670.82로 장을 마쳤다.

/연철뉴스

삼바, 증선위 앞두고 22% 대폭락

셀트리온 12%, 신라젠 7% ↓ 바이오주 투자자들 멘붕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의 최종 결론 발표를 앞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폭락했다.

1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 거래일보다 22.42% 급락한 28만 5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14일 최종 결론을 내린다. 최대 쟁점은 회계처리 변경의 고의성 여부다. 증선위가 지난 7월 공식 누락으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회계처리에 대해 ‘고의적 분식’으로 결론을 내리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위반으로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을 뿐 아니라 재차 검찰에 고발된다.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변경에 고의성이 있다고 결론 내린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다른 바이오주들도 급락했다. 셀트리온은 11.98% 하락한 20만 2000원, 신라젠은 9.14% 하락한 6만 5600원에 마감했다.

셀트리온은 3분기에도 부진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약세를 보였다. 셀트리온의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0.4% 하락한 2311

억원, 영업이익은 44% 내린 736억원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 1420억원 대비 거의 절반 수준이다.

4분기 실적도 부진이 예상된다. 신한금융투자는 4분기 셀트리온 매출액이 2640억원(-3.7%)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품목의 단가 인하 때문이다. 바이오의약품 매출은 2287억원(-4.6%), 케미컬 의약품 매출은 348억원(+2.9%)으로 추정됐다. 영업이익은 871억원(-46.4%)가량 줄 전망이다. ‘램시마’, ‘트룩시마’의 공급 단가 인하 영향 등으로 원가율이 46.3%(+22.1%p)로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김문호 기자

이중부양에 희망없는 희망퇴직... 사지 물리는 '사오정'

(부모·자식)

(死地)

(45세 정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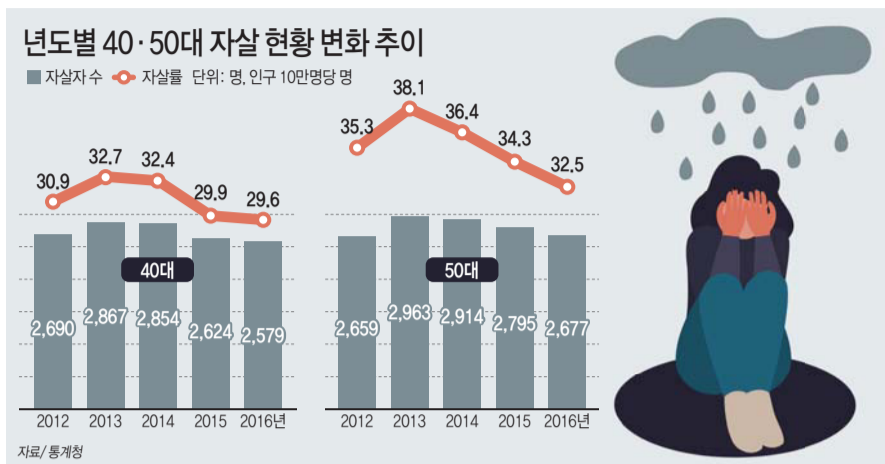
자, 살자! 자살률 1위 20명 칼출하자

③ 천덕꾸러기 된 40·50대

40대 71%, 50대 79% 부모 부양
48% “경제적으로 가장 부담 돼”

1년간 성인자녀에 월 74만원 지원
소수상류층 제외 부모 ‘노후 위협’

청년 직업훈련, 출산청년 지원 등
맞춤 지원으로 부양부담 덜어줘야



명 2579명이었다. 하루 평균 7명의 40대
가 자살한 셈이다.

50대 자살자수는 2012년 2659명, 2013
년 2963명, 2014년 2914명, 2015년 2795
명, 2016년 2677명이었다. 지난 5년간 50
대 1만4008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노쇠한 부모에 켈거루 자녀까지

한국의 중년은 왜 죽는 걸까. 대한스트
레스학회 학회지(제21권, 4호, 2013)에 실
린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생활 스트
레스와 직업 안정성이 중년 성인의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난 이들은 노쇠
한 부모를 돌보아야 했고, 경제적으로 자립
하지 못한 자녀들을 부양해야 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부양환경변화

에 따른 가족부양특성과 정책과제’ 보고
서에 따르면, 40대의 71.1%, 50대의
79.3%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으로 조사됐
다. 응답자의 절반 정도(48.4%)가 부모
부양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부
담’을 꼽았다.

보고서는 “경제적 부양은 국가와 사회
가 책임지고 가족 욕구와 경제력에 따라
다원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공적 부양 시스템을 확충하고 가족 공유
부양 영역인 정서적 부양이 담보될 수 있
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가족 형태 다변화에 따른 부양체계 변화
전망과 공사 간 부양부담 방안’에 의하

면, 중년 부모의 39%가 성인 자녀에게 경
제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자녀에게는 1년간 월평균 73만7000원의
부양비용이 들었으며, 부모의 31.6%가
자녀를 부양하는 비용이 부담된다고 답
했다.

연구원은 “부모가 성인 자녀를 경제
적으로 부양하는 것은 소수의 상류층을 제
외한 대부분의 계층에서 부모의 노후를
위험하는 일이다”며 “특히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가족의 경우 불평등은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구직 포기 청년층을 직업훈
련과 취업 연계 등을 통해 사회로 끌어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성인 자녀의 생애주기
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청년협
정 정책이 좋은 예다. 컬럼비아주는 학업
을 마치지 못한 성인기로 진입이 어려운
청년에게 학비를 제공하고, 취업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직업연계 및 직업학교
등록을 지원한다. 출산한 청년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 욕구에 맞는 맞춤
형 지원으로 청년층의 성인 자녀 부양부
담을 덜어주고 있다.

◆희망 없는 희망퇴직

지난 3월 희망퇴직이 결정된 한국GM
근로자 이모(55) 씨와 고모(47) 씨가 스스
로 목숨을 끊었다. 한국 4·50대는 부모와

자녀 ‘이중 부양’ 고통과 함께 고용 불안
에 시달리고 있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5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체감 퇴직연령’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예상하는 평균 퇴직
연령은 50.9세였다.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의 66.5%가 ‘현
재의 고용상태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10명 중 8명
(81.5%)이 자신의 고용 안전성을 보장받
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제15차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신중년 일자리 확충방안’을 발
표하며, 내년도 신중년 대상 일자리 예산
규모를 올해의 두 배 이상인 2715억원 수
준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내년에는 올해(1만8694개)
보다 2만5216개 늘어난 4만4000여개의
신중년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연구원은 “노인들의 소득보장과 고령
층의 고용개선을 위해 노동 고용정책을
활성화하고, 연금제도를 비롯한 사회보
장제도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
들이 노년기로 진입하기 이전에 조기 퇴
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및 정년연
장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
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604개 편의점 로또 판매권 회수

기재부, 내년 취약계층 대상
온라인 복권 판매점 모집

정부가 편의점 법인이 소유한 로또 판
매권을 오는 2021년까지 모두 회수하기
로 했다. 이르면 내년 취약계층을 대상으
로 판매점을 모집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제123차 복권
위원회를 열어 GS25, CU, C-SPACE 편
의점 법인이 소유한 로또 판매권 604개를
회수하기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편
의점주 개인이 소유한 1757개 판매권은
회수 대상이 아니다.

기재부는 법인이 직접 로또를 팔았던 8
개 편의점 판매권에 대해서는 올해 말 계

약 종료를 끝으로 회수할 계획이다. 편의
점 법인이 가맹점주에게 계약을 통해 빌
려준 596개 판매권은 오는 2021년 말 회
수한다.

회수된 판매권은 이르면 내년부터 장
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돌아간다. 이와 관
련해 기재부는 내년 중 연구용역을 실시
할 계획이다.

법인 판매권 회수분과 개인 판매권 자
연감소분 등을 고려한 적정 판매점수 산
정을 위한 조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총리실
의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 중 법인판매점
단계적 축소 결정과 복권법 입법 취지인
취약계층 우선 계약 등을 고려한 것”이라
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취업 후 학자금’ 미상환율 상승 전환

의무상환 1794억 중 8.1% 미상환
4년 연속 하락하다 작년부터 반등

재학기간 중 빌린 학자금을 취업 후 갚
아나가는 ‘취업 후 학자금’의 미상환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상승했다. 청년층 고용
난의 여파로 풀이된다.

12일 국제청 국제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학자금 의무 상환대상
1793억9000만원 중 8.1%인 145억3000만
원이 상환되지 못했다.

이는 전년 미상환율(7.3%)보다 0.8%p
상승한 것으로 미상환율이 오른 것은 관
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취업 후 학자금은 일반 국가장학금과
달리 취업을 한 뒤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
이면 소득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상환해
야 한다. 통상적으로 근로·종합·양도소득
의 의무상환 비율은 기준 소득 초과분의
20% 수준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상 금액은 2012
년 68억원에서 2016년 1247억원으로 급
증했지만, 미상환율은 같은 기간 17.8%
에서 7.3%로 빠르게 하락했다. 하지만 지
난해 상환대상금액보다 미상환금액이 더
빠르게 늘면서 미상환율은 2014년
(13.0%) 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 미상환율 상승은
청년 취업난과 함께 비정규직 등 불안정
한 취업 비중이 증가한 탓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8월 기준 대졸이상 비정규직은
213만3000명(32.6%)으로 비정규직 중 비
중은 고졸(44.2%)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
지만, 전년 대비 증가 폭(4.1%)이 가장 컸
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지난해까지
2년 연속 9.8%를 기록, 통계 집계가 이뤄
진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도 1분기 10.0%, 2분기 10.1%, 3분기 9.
4%를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의원(더
불어민주당)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8년 8월 말 기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연도별 연체 현황’을 보면,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연체된 인원이 2만8069
명에 달하고, 연체 잔액도 1541억 원인 것
으로 드러난 바 있다. /한용수 기자 hys@r

사립유치원 원아모집 일정 첫 전수조사

교육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교육부가 처음으로 전국 사립유치원들
의 2019학년도 원아모집 일정을 전수조
사한다. 교육부는 그동안 휴·폐업 유치원
수만 조사해 왔으나, 유치원들이 모집일
정을 내놓지 않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안
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는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
터 관내 사립유치원 원아모집 일정을 취
합해 집계할 예정이다. 집계결과는 내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지난 6일 17시30분을 기준으
로 집계한 휴·폐업 사립유치원은 전국 38
곳으로 전체 사립유치원 4083곳의 1%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원아모집 일정이나
설명회를 보류하거나 정하지 않은 유치
원은 이보다 많다.

내년에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자녀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이 12일 오
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치원 3법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둔 학부모들은 인근 유치원들이 휴·폐업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모집 일정이나
입학설명회를 열지 않으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원
아모집 일정을 파악한 뒤 이유없이 모집
일정을 미루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행·
재정적 처분을 내릴 수 있을지 검토할 방
침이다. /한용수 기자

중소 근로자 전용 임대주택 4만호 짓는다

중기벤처부-국토부

2022년 3만호 입주, 1만호 추가공급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토교
통부가 손을 잡았다.

2022년까지 중소기업 등 근로자 전용
임대주택을 4만호 건립·공급하고 주거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 메이커스
페이스, 청년몰 등을 들여와 창업을 돕기
로 한 것이다.

중기부는 12일 경기 화성 산단형 행복
주택에서 국토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일

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과 도시
재생, 국토교통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
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2022년까지 ‘일자리 연계
형 지원주택’ 3만호를 입주시키고, 사업
승인을 통해 1만호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
획이다. 이들 주택은 중기근로자 전용주
택, 소형형 주거클러스터, 산업단지형 행
복주택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2년
이후 추가 입주가 가능한 1만호도 같은
용도로 쓰인다.

특히 이들 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중소
기업 근로자를 위해 ‘중기 취업 청년 입차

자금 용자’ 상품을 통해 주거비 부담도 줄
여줄 방침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단지내 상가를 청년,
사회적기업, 소상공인에게 시세의 50~
80% 수준까지 싼 임대료로 2022년까지
430실을 공급하기로 했다. 당장 올해에도
115실을 선보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주거지원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
도록 다양한 방안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
이라며 “중소기업이 보유한 토지 중 주택
공급에 적합한 토지를 조사해 정보를 제
공하고, 토지 제공 중소기업엔 금융·R&
D·마케팅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
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하이닉스도 '초격차' 합류... '中의 반도체 굴기' 한날 꿈으로

수 나노대 초정밀 공정도 머지 않아 효율이 곧 경쟁력... P램 시장도 두각

국내 반도체 업계가 후발 주자들의 추격을 더 멀찍이 따돌리고 있다.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도 2세대 10나노 D램 시대를 열어젖히면서다. 세대를 뛰어넘는 미세공정인 EUV(극자외선) 도입도 머지 않았다는 평가다. 격차가 좁아진 메모리 시장에서는 차세대 제품으로 시장을 뒤흔들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D램, EUV 타고 10나노 미만으로

12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1y 공정을 적용한 D램은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정도만 개발한 상태다. 10 초반대 나노 공정인 1z D램도 조만간 양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수 나노대 공정 도입도 머지 않았다. EUV란 극자외선을 이용해 반도체 웨이퍼를 작성하는 초정밀 공정이다. 삼성전자는 화

성과 팹팩 캠퍼스에 각각 EUV 라인을 구축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험 운영도 시작한다. SK하이닉스도 머지 않아 EUV 공정을 양산에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아직 D램 양산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그나마 양산을 시작해도 20나노대 후반인 2x 제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미간 무역 전쟁으로 양산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D램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이 때문이다.

◆차세대 메모리도 선점

그러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중국과 격차가 많이 좁혀졌다. 최근 중국 UNIC 메모리 테크놀로지는 시장 주력 제품 중 하나인 64단 3D 낸드 플래시 시제품을 공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92단 낸드를 양산하거나 개발한 상태로, 기술 차이는 1~2년 정도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반도체 업계는 개의치 않는 모양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경쟁력은

누가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만큼, 여전히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는다는 계산이다.

특히 국내 반도체 업계는 차세대 메모리 경쟁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정 물질 형태 변화를 이용해 데이터를 저장하는 P램이 대표적이다. 낸드 플래시보다 빠르고 비휘발성인 성격을 갖고 있다. 삼성전자는 2004년 세계 최초로 64MB P램을 개발한 이후 기술력을 주도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2012년 IBM과 손잡고 개발에 몰두하는 중이다. D램보다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어서, D램까지도 대체할 수도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반도체는 더 작고 싸게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며 "기술 획득 여부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승패가 갈린다. 국내 업계 기술력이 크게 앞서 있는 만큼, 중국 업계가 추격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2세대 10나노급 D램, 내년부터 양산

전송속도 위해 4단계 클로킹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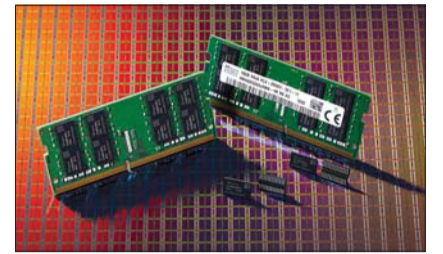
SK하이닉스가 2세대 10나노급 개발에 성공했다. 내년부터 양산에 공급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최근 2세대 10나노급(1y) 미세공정을 적용한 8Gbit DDR4 D램을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전세대(1x)보다 생산성이 20%가량 높아졌고, 전력소비는 15% 이상 줄었다. 데이터 전송 속도는 3200Mbps에 달한다.

SK하이닉스는 데이터 전송 속도 향상을 위해 '4단계 클로킹' 설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신호를 2배로 늘려 동작 속도와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센스 앰프 제어 기술'도 주요 특징이다. 데이터를 증폭하는 센스앰프 성능을



SK하이닉스는 2세대 10나노급 D램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강화하는 기술로, 공정을 미세화할수록 전력소비와 데이터 오류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김석 DRAM 마케팅 담당 상무는 "이번에 개발 완료된 2세대 10나노급 DDR4는 고객이 요구하는 성능과 용량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내년 1분기부터 공급에 나서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대한상의 '성윤모 장관 초청 간담회' 1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車 협력社, 친환경車 전환 지원 증권사 파생상품 건전성 점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강연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한국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만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분석이 나왔다. 기존의 수출산업을 구조조정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해결책도 제시됐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2일 대한상의 초청 '글로벌 경제와 한국금융'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의 투자심리 위축 요인에 대해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과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성장률 하락 우려를 꼽았다.

미국이 앞으로 세 번 정도 금리를 더 올리면 기준금리가 미국의 중립금리(연 3%)보다 높아져 경기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소개했다.

미중 무역분쟁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으로 규정하면서 환율 분쟁을 비롯한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의 경우 무역분쟁의 부수적 피해로 직격탄을 맞은 그라운드 제로와 같은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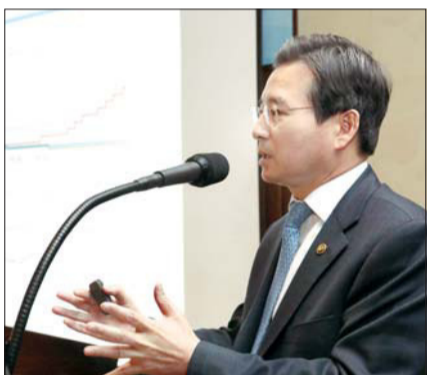
한국은 그 어떤 국가보다 중국의 전자제품 공급체인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최근 원화는 중국 위안화와 동조화 경향이 강해져 있다고 부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의 성장률을 글로벌 평균이나 미국·중국보다 더 많이 하향 조정할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은 무역분쟁 진행 상황에 따라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이므로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차원에서 수출산업을 선제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중요한 2가지 과제로 자본시장 혁신과 핀테크를 들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금융위원회 제33차 회의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말뉴스

그는 자금조달 체계를 개선하고 전문투자자 참여를 확대하며 상장제도를 개편하는 등 자본시장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그림자금융으로 불리는 비은행권의 금융중개 기능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헤지펀드나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사, 머니마켓펀드(MMF)나 환매조건부채권(RP) 등 영역에서 시스템 리스크가 누적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증권사에 대한 파생결합상품이나 채무보증 등 건전성 조치를 검토하고 여권사의 경우 자금조달 구조를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은 12월중 비은행권 금융 관리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기업구조조정 역시 주요 현안으로 분류했다.

위기에 빠진 자동차 산업은 친환경차나 스마트차 등 고부가 첨단 산업으로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선사는 제작금융과 선수금환급보증(RG) 등 조선사 및 조선기자재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지금은 화두만 던져진 수준"이라면서 "단기간에 결정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세제 당국도 장기적으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방향을 생각하지만 매수·매도 모두 세금을 내는 증권거래세는 세수 측면에서는 한마디로 효자"라면서 "재정당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연말뉴스

한달간 5兆 팔아치운 외국인... 채권도 팔자

코스피 22개월만에 2000선 무너져 매수 우위 돌아서기엔 여건 힘들어

(외국인의 상장증권 순투자* 및 보유 현황) (단위: 십억원, 결제기준)

구분	2017년	상반기		2018년	9월	10월	보유잔고
		상반기	하반기				
주식	10,180	10,894	△714	△6,758	580	△4,638	524,602
채권	9,447	14,520	△5,073	13,665	△1,912	△274	111,818
합계	19,627	25,414	△5,787	6,907	△1,332	△4,912	636,420

* 상장주식은 장내거래 기준, 상장채권은 장내·장외거래 기준.

외국인이 지난달 국내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5조원 가까이 팔아치웠다. 외국인의 매도세에 코스피지수는 22개월 만에 2000선이 무너졌고, 채권시장도 자금유출세가 이어졌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0월 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4조6380억원을 순매도, 상장채권 2740억원을 순유출해 총 4조9120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외국인은 주식시장에서 지난 7월 이후 순매수를 유지하다가 10월 만에 매도 우위로 돌아섰다. 특히 지난달 주식 순매도 규모는 2013년 6월 5조1470억원 이후 5년 4개월 만에 최대치다. 코스피시장에서 4조원, 코스닥시장에서 7000억원 가량을 순매도 했다.

매도세를 주도한 곳은 유럽이다.

지역별로는 유럽의 순매도 규모가 2조3000억원으로 가장 컸고, 아시아와 미국도 각각 1조2000억원, 3000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는 영국과 네덜란드가 각각 1조2000억원, 9000억원 가량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장기성과를 겨냥하는 자금이 주류인 미국과 달리 유럽은 이슈에 따라 단기 매매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난달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불안이 커지면서 유럽계 자금이 대폭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주식 보유규모는 미국이 224조원으로 외국인 전체의 42.7%를 차지하고 있고 ▲유럽 152조2000억원(비중 29.0%) ▲아시아 61조2000억원(11.7%) ▲중동 19조3000억원(3.7%) 등의 순이다.

연초 이후 누적으로 보면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도 규모는 6조7580억원까지 확대된다.

문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앞으로도 이어질지다. 전망은 밝지 않다. 매도세는 다소 진정되었지만 매수 우위로 돌아설 여건은 녹록치 않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힘든데다 지난 2분기 이후 달러 강세도 이어지고 있다.

유안타증권 조병현 연구원은 "외국인 수급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해소되거나 환율을 고려한 국

내 증시의 가격 메리트가 커져야 한다"며 "대의 불확실성 해소가 당장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환율이 중요한 지표가 됐지만 아직까지 그 자체로 매력적인 수준까지 진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채권시장에서도 외국인 자금은 두달째 순유출됐다.

10월 중 외국인 순매도 3조6150억원을 순매수했지만 3조9000억원의 만기 상환으로 총 2740억원이 빠져나갔다. 순유출 규모는 전달 1조9000억원보다는 줄었다.

국가별로는 아시아에서 1조3000억원이 순유출됐고, 통안채(-6000억원)와 잔존만기 1년미만(-9000억원)이 매도 대상이 됐다.

외국인은 10월 말 기준 총 111조8000억원의 규모의 상장채권을 보유 중이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다.

/안상미 기자 smahn1@

‘올 2100억 적자’ 자동차 보험료 얼마나 올릴까

손보사 1~9월 손해율 83.7%
중소형사는 손해율 100% 넘어
업계 보험료율 검증 절차 추진
3% 안팎 인상으로 마무리 전망

올해 1~9월 중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에서 210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 손해보험사의 영업손익도 마이너스였다. 자동차보험 판매실적이 감소하고 손해율이 상승한 영향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 11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12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2조8000억원) 대비 4000억원(3.0%) 감소했다. 지난해 보험사별 보험료 인하, 차량 등록대수 증가세 둔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

같은 기간 사업비율은 18.2%로 전년 동기(19.0%) 대비 0.8%포인트 하락했다. 인터넷 가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17년 1~9월 78.9%로 양호했으나 올해 1~9월 83.7%로

(2018년 1~9월 손보사별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구분	대형사				중소형사						
	삼성	현대	KB	DB	메리츠	한화	롯데	엠지	흥국	악사	더케이
손해율	83	82.2	85.1	83.9	79.7	85	89.4	95.4	95.9	84.5	91.2
사업비율	17.8	19.3	20	17.3	20	20.2	17	29.1	22.2	8.9	13.1
합산비율	100.8	101.5	105.1	101.2	99.7	105.2	106.4	124.5	118.1	93.4	104.3
영업손익	▲269	▲360	▲712	▲284	16	▲221	▲191	▲58	▲140	211	▲96

단위: %·억원

/자료=금융감독원

상승했다. 분기별로는 2018년 1분기 82.6%에서 2분기 80.7%로 개선됐으나 3분기 폭염 등에 의해 87.6%로 다시 악화했다.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은 77~78%이지만 10월 가마감 기준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0%를 넘겼다. KB손보(94.5%), 현대해상(93.8%), DB손보(92.8%), 삼성화재(90.4%) 순으로 높았다. MG손해보험(124.5%)과 흥국화재(118.1%) 등 중소기업사의 손해율은 100%를 넘어섰다.

사업비율 개선(하락)에도 불구하고 손해율이 크게 악화되면서 전년 동기 흑자(2437억원)였던 자동차보험 영업손익은 올해 1~9월 -2104억원으로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약 4500억원이 감소한 셈이

다. 분기별로는 1분기 영업손실(-483억원)이 발생한 후 2분기 영업이익(367억원)을 시현했으나 3분기에는 대규모 적자(-1988억원)를 기록했다.

오는 14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업계 1위사 삼성화재를 제외한 현대해상, DB손보,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4개 손보사의 올해 3분기(7~9월) 당기순이익은 3747억원으로 전년 동기 4762억원에 비해 1015억원(21.3%) 감소했다.

현대해상의 3분기 순이익은 1009억 6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5%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3조2162억원)과 영업이익(1445억4400만원)도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8%와 12.9% 줄었다.

KB손보의 3분기 순이익은 1035억원에

서 493억원으로 542억원(52.4%) 줄었다. 메리츠화재는 934억원에서 729억원으로 205억원(21.9%), 현대해상은 1239억원에서 1009억원으로 230억원(18.5%), DB손보는 1554억원에서 1516억원으로 38억원(2.5%) 순이익이 줄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등 4개 대형 손보사의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은 100%를 초과 상회한 수준(100.8%~105.1%)으로 대형 4개사 모두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합산비율이 100%를 초과하면 손해액과 사업비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다는 의미다.

금융위 관계자는 “손보사 간 가격경쟁에 따른 보험료 수입 감소 및 부품가격, 한방진료비 등 손해액 증가에 따라 합산비율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정비요금 상승과 상급병원 이용 확대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 폭염 및 폭우 등으로 인한 손해율 상승으로 실적 악화가 가시화되면서 손보사들은 보험료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메리츠화재는 최근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기본보험료를 약 3% 인상하는 보험료율 검증의를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료 조정 요인이 발생하면 이를 받

영해 인상을 혹은 인하율을 산정하고 검증받는 절차를 거친다.

업계 1위사인 삼성화재를 비롯해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다른 대형사도 주요 정비업체와 정비수가 협상을 마무리하는 대로 보험료를 검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대형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악사(AXA)손해보험 등 중소기업사들도 따라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험료 인상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업계는 최소 7~8%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3% 안팎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6월 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적정 정비요금은 작업시간당 평균 2만8981원으로 약 2.9%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으나 최근 실제 계약 결과 인상폭이 3.4%까지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수치가 말해주듯 손해율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지만 한꺼번에 올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손해율 상승은 실적 악화로 직결되는 만큼 단계적 인상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KEB하나銀, 일자리 위해 기보에 100억 출연

혁신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KEB하나은행은 12일 기술보증기금과 일자리창출 및 신기술 기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일자리 창출기업과 혁신성장 분야 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 신규 고용창출을 돕고 혁신성장 기업을 발굴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KEB하나은행은 특별출연금 95억원, 보증료지원금 5억원 등 총 100억원을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고, 기술보증기금은 일자리창출기업과 혁신성장분야 기업 등에 약 274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본 협약의 대상기업은 일자리창출효과가 크거나 사회적 약자 등을 고용한 일자리창출기업, 혁신성장분야기업, 사회적

기업 등으로 특별출연 협약보증과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의 두가지 방식으로 운용된다.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보증비율 100%의 보증서를 발급하며, 보증료 연 0.2%를 5년간 감면한다.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은 KEB하나은행이 3년간 보증료 연 0.2%를 지원하고 기술보증기금이 3년간 보증료 연 0.2%를 감면하여 총 연 0.4%의 보증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2월부터 ‘최저임금 고충·일자리창출 지원 행복나눔 프로젝트(이하 행복나눔 프로젝트)’를 시행해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기업에게 총 1조 5000억원 규모 소진시까지 대출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번 협약은 행복나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상기업은 금융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문호 기자 kmh@

‘하나 플레이폼’ 통해 디지털전환 문화 확산

하나금융그룹 임원 110여 명 대상
동양화·팝아트 등 체험수업 진행

하나금융그룹은 디지털 전환(DT·Digital Transformation) 문화 확산을 위해 10월, 11월 두 달간 그룹 임원을 대상으로 ‘하나 플레이폼’을 체험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하나 플레이폼’은 디지털 비즈니스의 중심은 결국 사람이라는 김정대 회장의 디지털 경영철학을 기반으로 ▲재능은 있지만 손님을 만나기 어려운 스타트업 업체 및 강사들에게 온·오프라인 채널을 ▲영업장 활용에 고민이 많은 소상공인에게는 공간제공을 통한 추가매출을 ▲참여자들에게는 다채로운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참여형 플랫폼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10월부터 두 달 동안 그룹 임원 110여명 대상으로 총 8회차에 걸



하나금융그룹 ‘하나 플레이폼’ 체험 행사에서 임직원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쳐 펜드로잉, 동양화, 팝아트, 가죽공예 등의 체험 수업을 진행했으며 향후 참가대상을 그룹사 직원들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한 한 임원은 “서비스 제공자와 장소 제공자의 수요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다양한 문화생활을 더욱 손쉽게 누리게 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며 “디지털 전환이란 말을 접했을 때 막연히 기술적인 것으로만 느꼈

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이러한 생각의 관점을 전환하는 것이 디지털 전환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준성 하나금융그룹 디지털총괄 부사장은 “하나금융그룹은 손님에 대한 관심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소비자의 니즈를 실시간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휴머니티 기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김문호 기자

제56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8년 11월 14일~12월 6일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8년 11월 17일~12월 8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응선) : 300,000 → 130,000원
11월 25일(일), 12월 2일(일), 12월4일(화)

www.leadersauction.com

※사전 수강 신청 필수 -홈페이지 참조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

NH농협은행 올원뱅크 전용 ‘NH올원해봄적금’

NH농협은행은 목표를 향해 매일 도전(해봄)하는 고객을 위한 올원뱅크 전용 금융상품인 ‘NH올원해봄적금’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NH올원해봄적금은 올원뱅크에서 ‘해봄하기’ 목표설정을 통해 금원, 다이어트 등 본인만의 도전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며, 매일 도전을 성공할 때마다 간편한 버튼 클릭 한번으로 적금에 입금이 가능한 올원뱅크 전용 기능을 제공한다.

NH농협은행은 고객의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NH올원해봄적금에 ‘해봄하기’ 버튼 클릭을 통한 입금실적과 만기까지 적립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1.0%포인트의 우대금리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올원뱅크 전용상품 가입과



객과 300만 회원대상 응원댓글 작성 고객을 대상으로 우대금리 쿠폰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안상미 기자 smahn1@

KB국민은행 실시간 해외송금 19개국으로 확대

KB국민은행은 ‘KB 원 아시아(ONE ASIA) 해외송금 서비스’ 제휴은행을 기존 18개국 135개은행에서 19개국 150개은행으로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KB 원 아시아 해외송금 서비스는 KB국민은행의 해외 제휴은행 네트워크를 활용한 실시간 해외송금 특화 서비스다. 대만과 베트남, 태국, 필리핀, 미얀마,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 주요 19개국 대상으로 미국 달러와 송금이 가능하다.

송금수수료는 송금액과 상관없이 1000원으로 동일하고, 당일 송금 수취가 가능해 고객들은 기존 송금보다 저렴하고 신속하게 해외송금을 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삼성디스플레이, 초해상도 트렌드 선도

세계 최초 'UHD 비디오월' 출시

화소수 830만개... FHD 제품 4배 3.7mm '울트라 내로우 베젤' 적용 거대한 멀티비전 형태 제작 가능

삼성디스플레이는 세계 최초로 UHD(초고화질·화소 수 3840×2160) 해상도의 비디오월을 개발해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했다고 12일 밝혔다.

비디오월은 화소 수가 FHD(풀HD) 제품의 4배인 830만개에 달하며 베젤(테두리)의 너비를 획기적으로 줄인 게 특징이다.

해상도가 높을수록 배선도 늘어나 베젤을 얇게 만드는 게 어렵지만 3.7mm의 '울트라 내로우 베젤'을 적용해 UHD 해상도를 구현하면서도 패널과 패널 사이의 간격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현재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UHD 해상도의 단품 사이니지 제품은 상용화됐지만 멀티비전 형태로 제작할 수 있는 비디오월



삼성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로 출시한 4K UHD 해상도의 '65인치 비디오월'. /삼성디스플레이

제품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품을 2단·2열(4개)로 연결해 멀티비전으로 제작할 경우 46인치 패널을 3단·3열(9개)로 연결한 크기와 비슷한 가로 288.6cm, 세로 162.7cm의 거대한 비디오월을 구현할 수 있다.

양오승 삼성디스플레이 LCD 마케팅 팀장은 "TV 시장에서 UHD 해상도가

표준 사양으로 자리 잡고 8K 해상도가 부상하고 있는 것처럼 비디오월 시장에서도 더 뛰어난 해상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65형 UHD 신제품 출시를 통해 비디오월 시장의 고해상도 트렌드를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LG니꼬동제련, 165만t 동광석 확보

호주 광산기업과 장기구매계약 5년간 매년 33만t씩 안정적 공급

LS니꼬동제련은 세계 최대 규모의 호주 광산기업 BHP와 동광석 장기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양사는 울산 롯데호텔에서 LS니꼬동제련 최고경영자(CEO) 도석구 사장과 BHP 다니엘 말척 아메리카 총괄사업부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인식을 열었다. 이번 계약의 기간은 5년, 총거래량은 165만t으로 LS니꼬동제련 창사 이래 최대 규모다.

이번 계약을 통해 LS니꼬동제련은 내년 2023년까지 BHP가 운영하는 칠레 에스콘디다 광산의 동광석을 매년 33만t씩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됐다.

LS니꼬동제련은 BHP가 공급하는 원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

료로 전기동 50만t을 비롯해 금·은·백금·팔라듐 등 귀금속과 희소금속, 황산·고순도 황산(PSA) 등 약 3조원대 규모의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LS니꼬동제련은 "지난 9월 페루의 광산기업 민수르와 10년간 56만t 규모의 장기구매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이번 계약까지 연이어 성사됐다"며 "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계약에서 연간 25만t이었던 BHP 물량은 이번 계약에서 33만t까지 늘었다. 통상 동광석 계약기간이 3년 이내이지만 5년의 장기구매 계약을 맺기도 했다. /김유진기자

일반 셋톱박스도 AI 활용 'Btv 누구 서비스'

SK브로드밴드, SKT와 협업 연내 전체 UHD 셋톱박스 적용

SK브로드밴드는 'B tv'의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일반 셋톱박스 고객도 이용할 수 있도록 'B tv 누구(NUGU)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SK텔레콤과의 협업을 통해 이번 'B tv NUGU 서비스'를 개발했다. 기존에는 AI 일체형 'B tv x NUGU' 셋톱박스를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했던 누구 서비스를 일반 셋톱박스에도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B tv x NUGU' 셋톱박스와 마찬가지로 주문형비디오(VOD) 조건검색과 함께 ▲뮤직메이트, 멜론 등 음악 서비스 ▲팟캐스트, ASMR, 오디오북 등 미디어 서비스 ▲스마트홈 제어, 날씨, 미세먼지, 운세, 교통정보, 백과사전, 한영



모델이 'B tv NUGU 서비스' 개시 소식을 알리고 있다. /SK브로드밴드

사전, 프로야구 정보 등 생활정보 서비스 ▲폰찾기, 11번가 추천상품 주문, 홈쇼핑 주문 등 생활편의 서비스 등 AI 서비스를 B tv 일반 셋톱박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B tv NUGU 서비스'는 리모컨의 음성검색 버튼을 누른 후 목소리로 명령을

하면 TV 화면을 통해 즐길 수 있다. B tv와 누구 모바일 앱을 연결할 경우 홈쇼핑 주문과 같은 음성인식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콘텐츠별 시즌 간 이동, VOD 플레이 제어 등의 사용자 경험(UX)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VOD 시청 중에 "30초 뒤로 이동해줘", "1시간 30분부터 재생해줘", "4배속으로 재생해줘" 등 VOD 플레이를 음성만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된다.

SK브로드밴드는 'B tv NUGU 서비스'를 UHD·HDR 셋톱박스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전체 UHD 셋톱박스에 적용을 완료할 계획이다. SK브로드밴드의 UHD·HDR 셋톱박스를 이용 중인 고객이라면 셋톱박스나 리모컨 교체 없이 펌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B tv NUGU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LG전자, 국내 최대용량 16kg 건조기 예판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적용 트롬 건조기 다음달 출시

LG전자가 최대 용량 16kg의 건조기를 내놓는다. LG전자는 다음달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트롬 건조기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LG전자 홈페이지와 전국 LG베스트샵에서 사전 예약판매에도 돌입했다.

이번 제품은 프리미엄 건조기 핵심 기술인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를 이용하면서 국내 최대 용량인 16kg을 실현했다는 특징이 있다.

대용량 컴프레서는 냉매를 압축하는 실린더를 2개 품으면서 건조 능력을 높였다. 히트펌프 건조기는 냉매가 순환하며 발생하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원리, 냉매 양을 이전 모델보다 10% 이상 늘리면서다. 옷감에 바람을 불어주는 팬 전용 인버터 모터도 별도 탑재했다. 모터 2개가 빨라 종류와 양에 따라 건조통 회전속도와 건조통 내부 공기 흐름을 각각 제어할 수 있게 됐다.

모터와 컴프레서 속도도 자유자재로



LG전자는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를 적용하면서 용량을 16kg으로 늘린 트롬 건조기를 예약 판매 중이라고 밝혔다. /LG전자

조절할 수 있다. 인버터 기술력을 통해서다.

트롬 건조기만의 편의기능은 그대로 이어갔다. 대용량 물통을 이용해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고, 미니워시를 아래에 결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콘텐츠 자동세척 시스템도 트롬만의 기능이다.

출하가격은 209만~219만원이다. 예약 판매자에게는 '퓨리케어 공기정정기'를 증정하며, 21kg 트롬 세탁기를 함께 구매하는 경우에는 10만원 상당 추가 혜택을 준다. 4kg 미니워시를 함께 구매하면 30만원 상당 로봇 청소기를 추가 제공한다.

/김재용기자 juk@

LG이노텍, 국내 최초 자율車용 통신모듈 개발

LTE 기반 C-V2X 모듈 신용카드 3분의 1 사이즈

LG이노텍이 롱텀에볼루션(LTE) 이동통신 기술 기반 C-V2X 모듈 개발에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

커넥티드카와 자율주행차 등에 장착 가능한 모듈 단계까지 기술 완성도를 높인 것은 국내 기업 중 LG이노텍이 최초다.

C-V2X란 '셀룰러 차량·사물통신'의 약자로 이동통신 기술을 활용해 차량과 차량·보행자·인프라 간에 교통 및 도로 상황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C-V2X의 통신 기능을 하는 핵심부품이 C-V2X 모듈이다.

C-V2X는 카메라, 레이더 등 차량 센서에 의존해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기존 자율주행차의 한계를 극복할 기술로 주



C-V2X 모듈. /LG이노텍

목받고 있다. 다른 차량 및 도로 인프라 등과의 통신으로 사각지대 돌발 상황까지 인지할 수 있어서다.

이번 LG이노텍의 C-V2X 모듈 개발로 완성차 및 부품업체들은 차세대 통신 플랫폼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 모듈을 사용하면 V2X 관련 수백 개의 부품을 구입하거나 복잡한 통신회로와 소프트웨어를 새로 설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LG이노텍은 C-V2X 모듈의 두

뇌 역할을 하는 통신 칩셋으로 현재 가장 앞선다고 평가받는 '퀄컴 9150 C-V2X'를 사용했다. C-V2X가 전례 없는 신기술이라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최적화하기 어렵지만 LG이노텍은 독자적인 회로 설계기술과 차량부품사업 노하우로 모듈화에 성공했다.

또한 LG이노텍은 국제 기술 표준을 준수해 지역이나 차량에 관계없이 여러 업체들이 이 모듈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세계 이동통신표준화기술협력기구(3GPP)가 지난해 3월 규정한 LTE C-V2X 직접통신 표준을 따랐다.

아울러 LG이노텍 C-V2X 모듈은 사이즈가 신용카드의 3분의 1 정도로 작아 차량 내부 어디든 장착하기 좋다. 통신 칩셋, 메모리 등 350여 개의 부품을 탑재하고 고도 두께가 3.5밀리미터(mm)다.

/구서운 기자 yuni2514@

한진, '블프'기념 배송비 최대 100% 할인

자사 해외배송 대행 서비스 이벤트 우리비자카드 결제시 배송비 혜택



한진은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해외쇼핑 고객들을 위해 자사의 해외배송 대행 서비스인 이하넥스를 대폭 할인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한진은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월 평균 물동량이 평소보다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한진은 제휴 카드사와 함께 '우리오리한 혜택, 배송비 50~100% OFF' 이벤트를 연다. 오는 12월31일까지 해외쇼핑몰에서 우리비자카드 100달러 이상 결제시(단일 승인건 기준) 배송비의 50%, 150달러 이상 결제시 70%, 200달러 이상 결제시 100% 할인 혜택을 준다.

관련 이벤트는 미국의 오레곤, 캘리포니아,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미주물류센터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배송대

행과 'THE 빠른 서비스' 모두 적용된다. THE 빠른 서비스는 통관에 필요한 필수 항목 작성만으로 별도의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국제특송이 진행돼 보다 빠르고싼 운송료로 상품을 받아볼 수 있다.

또 이벤트에 참여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최대 10만포인트도 적립해준다.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진 이하넥스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아울러 배송대행서비스를 손안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하넥스 모바일 앱(APP) 서비스도 강화한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저장 기능과 작성중인 신청서를 언제든 쉽게 불러올 수 있도록 임시저장 기능을 새로 도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초대형 선박 사이버보안기술 현대중, 세계 최초 인증 획득

이달말 유럽 선주에 인도

현대중공업이 초대형 선박에 대한 사이버 보안 기술을 세계 최초로 인정받았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미국 선급협회인 ABS로부터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에 대한 사이버 보안 기술 인증(CSR)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이달 말 해당 선박을 유럽 선주에 인도할 예정이다.

이번에 인증 받은 것은 선박 내외부 사이버 보안 위협요소로부터 주요 제어시스템을 보호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성을 높인 보안 기술이다. ABS 선급은 지난 10월 말 선박 내 주요 제어시스템 및 통신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보안 상태를 철저히 검증했다.

최근 선박의 운항 기술에 ICT(정보통신기술)가 융합되면서, 해킹 등 외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선박시스템과 데이터를 보호하는 보안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실제 세계 최대 해운회사인 머스크는 지난 2017년 랜섬웨어 공격으로 물류시스템이 마비돼 화물 선적과 하역 작업이 중



미국 선급 ABS로부터 사이버보안 기술 인증을 받은 현대중공업 초대형 원유운반선 모습.

단, 약 3000억 원의 손실을 입기도 했다.

ABS의 글로벌 사이버 안전총괄책임자인 폴 윌터스는 “현대중공업은 사이버 보안 기술을 세계적으로 공인받아 선주들에게 한층 더 안전성을 높인 선박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증가하는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선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선박 운용시스템과 연계 소프트웨어의 통합 사이버 보안 인증을 추진하는 등 선박 사이버 보안 기술에 대한 표준을 선도해나가고 있으며, 2011년 세계 최초로 스마트시스템을 개발해 현재까지 300여 척의 선박에 탑재했다.

/양성운 기자 ysw@



아발론 하이브리드.

연비·주행성능 다 잡았다



도요타 ‘아발로 하이브리드’

풀 LED헤드램프·언더그릴 강조 과감하면서도 세련된 느낌 담아 저중심 설계로 주행 안전성 UP 경쟁 모델보다 높은 가격 아쉬워

도요타 올 뉴 아발론 하이브리드는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날렵함을 갖추고 있다. ‘연비’와 ‘주행성능’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매력적인 차량이다. 이에 지난 9일 도요타의 아발론 하이브리드의 시승을 통해 차량의 매력을 분석했다.

아발론 하이브리드는 풀 LED(발광다이오드) 헤드램프와 언더 그릴을 강조해 과감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담아냈다. 차량은 낮고 넓은 차체를 갖추고 있다. 올 뉴 아발론은 전장 4975mm, 전폭 1850mm, 전고 1435mm, 휠베이스 2870mm의 대형 차체를 갖추고 있다. 현대차 그랜저의 전장 4930mm, 전폭 1865mm, 전고 1470mm, 휠베이스 2845mm 대비 전장과 휠베이스가 길다. 또 첨단 기술인 구조용 접착제와 레이저 스크류 용접(LSW) 공법을 적용하고 차체강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차량의 무게를 큰폭으로 감량했다.

아발론 하이브리드로 서울 잠실롯데월드타워를 출발해 강원도 영월의 예코브릿지까지 왕복 340km를 시승했

다. 주행성능은 기대 이상이다. 특히 와인딩 구간에서의 접지력은 뛰어났다. 급격한 코너링에도 스티어링은 느껴지지 않았다. 혁신 TNGA 플랫폼을 통한 저중심 설계로 주행 안전성을 높였다는 도요타측의 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각지대 감지 모니터와 차선이탈 경고 등의 안전 장치도 주행에 많은 도움을 줬다. 경쟁 차량에 적용된 차선이탈 경고 시스템은 적극적인 개입으로 주행이 불편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아발론 하이브리드는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수준으로 오히려 편안했다.

노면의 충격과 풍절음 등을 처리하는 능력도 뛰어났다. 고속도로에서 무리하게 속도를 높였지만 엔진음이나 풍절음은 동승자와 대화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크지 않았다. 또 과속방지턱을 지날 때도 외부충격을 거의 운전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부드럽게 흘러보내는 느낌이 들었다.

연비 측정을 위해 영월까지는 평소 운전 습관대로 주행했으며, 서울로 복귀할 때는 가속하게 주행했지만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록했다. 공식 복합연비 16.6km/L로 이날 영월까지 주행한 결과 16.8km/L의 연비를 기록했다. 또 급가속 등을 반복했음에도 12km/L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아쉬운 부분은 가격이다. 올 뉴 아발론 하이브리드의 가격은 4660만원으로 경쟁 모델보다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다.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와 비교하면 500만원가량 비싸다.

/양성운 기자

영국 주택 이어 스웨덴 호텔에 고출력 태양광모듈 공급

한화큐셀, 유럽 태양광 공략 가속

스톡홀름 클라리온 호텔 사인에
107kW 규모 태양광 모듈 설치

한화큐셀이 유럽 곳곳에 태양광 모듈을 공급하며 신시장 넓히기에 적극 나섰다.

한화큐셀은 최근 스웨덴 스톡홀름 클라리온 호텔 사인에 고출력 프리미엄 태양광 모듈을 공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태양광 모듈은 107kW 규모로, 스톡홀름 시내 호텔 중 최대 규모다.

이번에 공급한 ‘큐피크 듀오’는 태양광 셀을 반으로 잘라 저항 손실을 줄이고 출력력을 높이는 하프셀 기술이 적용된 고출력 프리미엄 태양광 모듈이다. 지난 7월 국내에도 출시된 큐피크 듀오는 일반 제품들과 달리 모듈 일부가 그늘에 가려져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 구조물이 많은 도심 내 주택이나 상업 시설에 설치하기 적합하다.

한화큐셀은 태양광 업계에서 최고 수준의 권위를 자랑하는 ‘인티솔라 어워드’를 수상한 큐피크 듀오 제품을 기반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주택용 및 상업용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높은 수익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클라리온 호텔 사인 전경.

/한화큐셀

기존 스웨덴은 풍력과 수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이어왔으나 지난해 연간 태양광 설치규모가 50%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유럽 내 태양광 신시장으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스웨덴 에너지청에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주택용 및 상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한화큐셀은 영국 런던에서 진행되는 1.5MW 규모 주택용 태양광 프

젝트에도 참여, 큐피크 듀오 제품을 공급하기도 했다. 런던 내 5개 자치구 약 600개 가구에 해당 모듈을 공급할 예정이다.

향후 한화큐셀은 독일, 영국 등 기존 주요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는 한편 스웨덴, 네덜란드와 같은 신시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글로벌 영업 네트워크를 확대해 매출을 신장하고 유럽 내 지위를 공고히 다질 계획이다.

김맹운 한화큐셀 유럽영업총괄 상무는 “유럽 시장은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 기술력과 제품 품질이 우수한 한화큐셀에게 높은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다”며 “최근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는 신시장을 비롯해 신시장 개척을 지속하고 글로벌 태양광 선도기업으로서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화큐셀은 유럽 내 확고한 지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 네덜란드 최대 수상태양광 프로젝트에 1.85MW 규모 ‘큐피크’ 모듈을 공급했고 8월에는 그리스 알루미늄 제조공장에 500kW 규모 큐플러스 모듈을 공급했다. 향후에는 런던 시가 추진하는 1.5MW 규모 주택용 태양광 프로젝트에 큐피크 듀오 모듈을 공급할 예정이다. /김민기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이통사 ‘5G 상용화’ 속도전… 체감은 ‘글썸’

업계, 내달 1일 5G 전파 송출 시작
초기시장 B2C 중심 사업 진행돼
체감 큰 B2B는 서서히 진행될 듯

당장 내달 첫 전파를 쏘는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에 가장 먼저 총대를 메는 이동통신사가 속도전을 내고 있다. 5G는 롱텀에볼루션(LTE)에 비해 전송속도나 지연시간, 단말기 수용능력이 우수해 자율주행차나 홀로그램, 가상현실(VR) 등 대용량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하는 서비스가 가능해 사업 외연도 넓힐 수 있다. 5G를 통해 미래 기술이라고 생각한 새로운 서비스가 우리 일상 속에 체감할 수 있게 되게 되는 셈이다. 차세대 네트워크의 빠른 선전은 향후 이동통신사의 패권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는 내달 1일 5G 전파 송출을 시작한다. 이에 맞춰 모바일 라우터를 이용한 5G 상용화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관심사였던 5G 장비 선정은 지난 8일 KT가 삼성전자와 에릭슨, 노키아를 5G 장비업체로 최종 선정한다고 공식 표명하며 마무리된 상황이다. SK텔레콤은 가장 먼저 지난 9월 5G 장비업체로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를 선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KT 관계자는 “5G 장비 공급사 선정에서 최고 수준의 5G 서비스 제공과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기술력은 물론 기존 LTE망과 연동해 안정적인 운용, 투자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공식적으로 장비사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에 화웨이를 추가해 4개 장비사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 선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도 이 같은 결정을 단행한 것은 기술의



수원에 위치한 삼성전자 5G연구소에서 SK텔레콤 연구원들이 ‘5G SA교환기’ 성능을 테스트하고 있다.

/SK텔레콤

최적화와 경비의 절감이다. 이미 2013년 LTE망 도입 시 화웨이 장비를 도입했기 때문에 5G망 구축에서도 장비 호환에서 화웨이 장비를 쓰는 것이 더 유리해 기술이나 속도에서 유리할 수 있다.

실제 유선 계열의 기술이 무선으로 진화를 시도한 4G(LTE) 시대에도 기술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진 바 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뒤늦은 후발주자였지만 빠른 LTE 전환으로 가입자가 늘어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각사는 장비사 진열 정렬 이후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삼성전자와 함께 ‘5G SA(단독규격)’ 기반 교환기 핵심 기술과 프로토타입 장비를 개발했다. 이 장비는 무선기지국과 인터넷망 사이에서 데이터 전송을 처리한다. 그 전에는 장비사와 5G 기지국을 연동해 데이터 송수신 과정을 검증해보는 ‘퍼스트콜’과 서로 다른 장비사의 기지국과 교환기의 장비 연동을 성공한 바 있다. KT는 망 구축과 함께 실감형 미디어 기반으로 5G 초기 서비스를 출시 준비에 전념하고 있다.

최고경영자(CEO)가 나서 직접 5G 상용화했기기도 한다. 하현희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지난 8일 서울 노량진 5G 네트워크 구축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근무자들 격려에 나선 바 있다. 하 부회장은 “5G는 향후 10년간 성장의 동력이 되는 통신업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며 5G의 중요성을 설교하기도 했다.

다만, 조만간 5G가 상용화된다고 해도 우리 생활에 눈에 띄는 변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초기 시장에서는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체감되는 큰 변화가 이뤄질 기업 간 거래(B2B)는 서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의 신기술 하이프 사이클 보고서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량이 자리 잡는 데는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장재현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5G 서비스를 위해서는 정부, 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5G 서비스에서 B2B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각 산업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고 다양한 솔루션과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등 통신사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5G 서비스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기 기자 silkni@

화학기술의 정점
미국 최대 화학기업 **첨단소재사업인수**

전기차 산업의 중심
유럽에 **전기차배터리 공장설립**

세계가 이노베이션한다 SK이노베이션한다

에너지·화학의 큰 그림을 그립니다

이 캠페인은 Google의 tiltbrush를 활용해
가상공간에 3D 이미지를 형상화한 VR아트입니다

무한한 에너지의 바다
남중국해 **원유 탐사 성공**

떠오르는 자동차 시장
남아시아를 **사로잡은 윤활유기술**

SK 이노베이션

SK 에너지

SK 종합화학

SK 루브리컨츠

SK 인천석유화학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국가별 맞춤 수출전략 등 'aT, 농식품한류 전진기지'로

혁신도시 10년

③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전통적인 수출시장 美·中·日 넘어
신남방정책 연계 '아세안 시장' 확대
대만·폴란드·브라질 등에 요원 파견
태국 등 13개국 18곳에 'K-프레시존'
올수출 62억 달러... 전년비 4.5% ↑
선도기업 육성... 신규수출 64건 달성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올해 국
산 농식품 수요기반 확충을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수출진흥과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 수출시장인 미국, 중국, 일본
을 넘어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연계한 아세안
시장으로의 수출진흥을 위해 ▲안정적 수출
을 위한 시장다변화 ▲신선 및 국산원료 중심
의 수출지원 ▲특성에 맞는 국가별 맞춤형 마
케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2월 aT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농수산
식품 수출 현황은 61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
기 대비 4.5% 증가하며 호조세를 보이고 있
다.

이 같은 추세에 힘입어 aT는 안정적 농식
품 수출여건 조성을 위한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사업들을 올해 진행했다.

먼저, 시장개척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시장
다변화 전략국가 선정했다. 대만, 폴란드, 브
라질 등 최우선 전략 국가에 시장조사, 바이
어발굴, 현지마케팅 등 시장개척 교두보 역할
을 수행할 파일럿 요원을 파견했다.

다변화 선도기업 100개사 육성 및 청년 해
외개척단(AFLO) 파견 사업도 진행했다.

선도기업 육성의 경우 시장개척단 파견, 바이
어 알선, 브랜드 컨설팅, 제품개발 등 신시
장 개척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패키지로 집



지난 5월 개최된 '2018 시알 차이나(Sial China, 상하이국제식품박람회)' 한국관 모습(왼쪽부터 시계방향). 지난 3월 일본 동경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식품전문 박람회 'Foodex Japan 2018' 한국관에 참가한 aT. 지난 9월 브라질에서 열린 '2018 한류 엑스포' 모습. /aT



이병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연합뉴스

중 지원해 올해 8월 기준 선도기업 전략국가
신규수출 64건(83만6000 달러)을 달성했다.

다음으로 aT는 농어가소득 제고를 위한 신
선농수산물 및 국산원료 가공품 수출 확대에
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출자 중심의 선도조직을 생산자 주도형
통합조직으로 전환해 마케팅 보드화 및 수출
창구 단일화를 유도했고, 신선농산물 및 국산
원료 사용 가공식품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진행했다.

싱가포르, 태국, 대만 등 3개국 18개소에
한국 신선농산물 전용 판매점 'K-Fresh Zo
ne'를 운영하고 신선농산물 및 국산원료 비
중이 높은 김치, 유자, 인삼 등에 대한 수출품
목 지원도 확대했다.

특히, aT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
은 시장 특성에 맞는 국가별 맞춤형 마케팅
강화한 것이다.

우선 동남아의 경우 국가별 집중 마케팅을
통해 동남아를 제2의 주력시장으로 육성한다
는 방침을 세웠다.

베트남은 인삼·배·포도, 태국은 포도, 오미
자, 인도네시아는 배, 음료 등 국가별 전략 품
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집중 마
케팅을 진행하고 수출 걸림돌인 열악한 물류
인프라 극복과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에 나섰
다.

일본의 경우에는 소비자 호감 향상 마케팅
으로 신 한류 붐 조성에 중점을 뒀다. 온라인
마케팅, 소비자체험행사 등으로 호감도 및 구
매의욕을 고취시키고 지난 달 'Hot&Red 테
마 푸드트럭' 체험 홍보로 HMR(가정간편식)
시장을 개척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맞춤형 수출상품 집중 지

원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영유아식품(이유식, 유아용곡수) 등 유망
상품 발굴 및 시장 정착을 지원하고 중국 파
워블로거인 '왕홍'을 활용한 홍보로 한국농식
품 인지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북미와 유럽의 경우에는 새로운 유통채널
발굴 및 다민족 마켓 진출 확대에 중점을 두
고 있다.

이와 관련, aT는 지난달 2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8개국에서 126개 업체, 150명의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350여개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와 1:1 매칭 상담을 진행하는 '하반
기 농산업 대규모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aT 이병호 사장은 "2018 하반기 농산업 대
규모 수출상담회(BKF)는 국내 농식품 수출
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신규 바이어 발굴
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큰 행사로, 수출업
체·바이어 모두가 만족하며 큰 성공을 거뒀
다"며 "앞으로도 aT는 대규모 수출상담회는
물론,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기획바이어 초청
상담회 등 다양한 바이어 초청 사업을 지속
추진해 중소수출업체의 신규 판로 지원에 앞
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전경.

농수산물 수출, 농어업인 소득향상 '구슬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1967년 12월 농
공간 격차 완화를 위해 설립된 농어촌개발공
사로 시작돼 1986년 12월 농수산물유통공사
를 거쳐 2012년 1월 현재의 한국농수산물유통
공사로 명칭을 바꾸고 새롭게 출범했다.

2014년 9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본
사를 이전했으며 2017년 1월에는 수급본부
를 설치했다. 그리고 올해 5월에는 지속가능
농업 실현 위한 신경영비전을 선포하고 농수
산식품 수출과 농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다
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사의 임무는 공사법 제1조에 명시된 농
어업인의 소득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사

는 크게 ▲수급안정 ▲유통개선 ▲수출진흥
▲식품산업육성과 관련된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수급안정의 경우 정부 지정 농산물 수매·
수입 및 비축·판매 전담관리 등의 사업을 진
행하고, 유통개선과 관련해서는 직거래 활성
화, 산지조직·도매시장 평가·지원, 유통정
보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출진흥 업무와 관련해선 수출기반
조성, 해외시장개척, 자금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식품산업육성과 관련
해선 식품·외식업체지원, 인프라구축, 전통
식품 육성 등의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
다. /세종=최신용 기자

'청년 파견' 해외개척, 수출 다변화 성과

올 11개국에 '아프로' 100명 파견 목표
남아공-김스낵, 베트남-떡볶이 수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수출시
장 다변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년 해외
개척단(AFLO) 사업이 현장에서 좋은 반응
을 얻고 있다.

12월 aT에 따르면 청년 해외개척단 AFL
O(Agrifood Frontier Leader Organizati
on)는 농식품 개척 청년리더 조직으로 글로
벌 역량과 열정을 가진 청년을 시장다변화
대상 국가에 파견해 수출업체의 현지 주재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신시장 개척 프로그
램이다. 우리 농식품 수출의 신규 시장을 청
년이 앞에서 개척해 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17년 발족해 1-2기 60명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바 있으며, 올해는 11개국 100명 파
견을 목표로 이달까지 60명을 해외에 파견
했다.

aT에 따르면 지난해에 AFLO와 함께 시
장다변화사업에 참여한 40개사가 신규 시장
런칭에 성공한 바 있다. 이러한 성공에 힘입
어 올 상반기의 경우 국가에 따라 최대 13:1
의 높은 모집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본인이 직접 중소
수출업체를 지원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
고, 사후 본인의 직업을 찾는 데도 직·간접적



지난 3월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a
T 청년 해외개척단 3-4기 합동 발대식 모습. /aT

인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 청년개척단 지원
열기의 결정적인 동기가 된 것으로 aT는 분
석하고 있다.

올해 또한 아프리카에 참여한 청년들은 다양
한 성과를 냈다.

청년개척단 4기에 참여해 남아프리카공화
국으로 파견된 김가형씨는 남아공 시장분석
을 통한 틈새시장 공략, 소비트렌드인 다이
아트 및 웰빙 식품과 접목해 김스낵 및 김밥
용김에 대한 신규 진출에 성공했다.

베트남으로 파견된 장철환씨도 매칭기업
의 잠재적 바이어를 적극 발굴하고 우리 음
식인 떡볶이에 대한 소개 및 홍보를 적극적
으로 진행해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

이병호 aT 사장은 "aT는 우리 농식품 수
출시장 다변화사업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
고 있는 아프리카 청년들의 파견활동 종료 후
에도 수출기업과 청년들 간의 지속적인 채용
기회를 마련하는 등 후속관리에도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버블의 교훈 “정부가 나서도 꺼질 거품은 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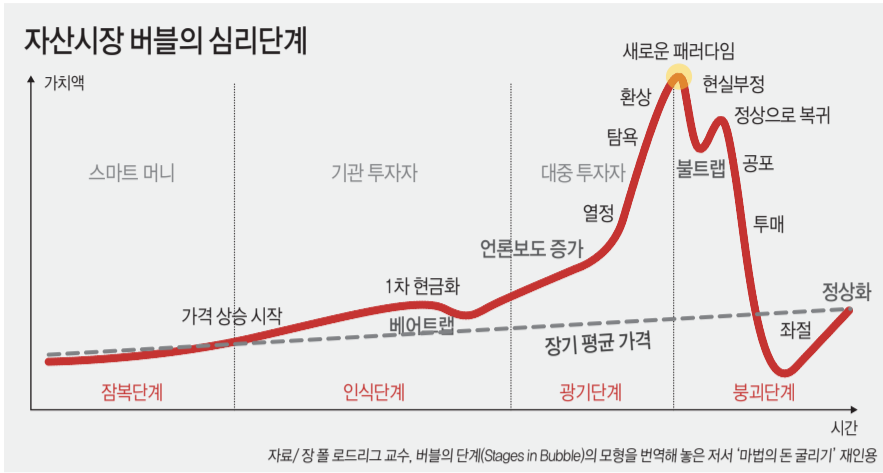
민스키 모멘트 시작되나 (버블붕괴 예고 경제학)

특하면 정부 탓

주가 하락보다 신용유자 잔고 문제
가격버블, 정책 실패 아닌 투자자 탓

자산 가격 버블(거품)에 대한 경고음이 나오면 정부 정책실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하지만 거품이 생긴 자산은 투기라는 이기주의가 만든 버블 일뿐더러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자산 가격 버블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역사이고, 그 흐름 속에서 개개인의 이성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신용유자 잔고는 총 9조2669억원이다. 2년 전(6조9468억원)에 비하면 33.4% 증가한 수준이다. 현재 한국 증시의 문제는 주가 하락보



다 쌓여있는 신용유자 잔고다. 신용유자란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빌린 자금을 뜻한다. 투자자는 해당 자금을 통해 주식을 사는데, 만약 주가가 하락해 신용유자 잔고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증권사는 투자자 동의없이 주식을 내다 파는 '반대매매'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반대매매는 당일 하한가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 신용유자는 한 달만 빌려도 10% 가까운 이자율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그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때 돈을 빌린다. 이러한 자금은 주가가 하락해 버블을 만들기도 한다. 실제 신용유자잔고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6월은 코스닥 역시 연 중 최고치를 기록한 달이다. 또 신용유자잔고와 코스피지수의 추이만 봐도 정비례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상승했던 주가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투자자들은 정부 정책 실패를 비난하고 나섰다.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정부의 증시 부양책은 시장에 안정감을 주는 선에서만 시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실제 1989년 4월, 3저 호황으로 국내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하락하자 투자자들이 시위에 나섰다. 그러자 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 2조 7000억원의 돈을 찍어내 주가 부양에 나섰다. 하지만 그 효과는 채 일주일도 가지 못했다. 정책이 가격을 움직일 수 없음을 증명한 사례다. 또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공매도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투자 전략인데다 한국 시장에서만 공매도가 금지되면 국내 증시 수급 주체인 외국인 자금이 대거 이탈할 것을 우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단 주식시장에서만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가격 거품에 대한

우려가 나올 때면 어김없이 정부의 정책 실패를 비난한다. 부동산 불패 시장을 만든 것은 정부 정책이 아닌 투자자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본인의 투자 수완, 하락하면 정부 탓을 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면서 “부동산 투자자들의 담합으로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이 유지되고 있어 언제 급락할 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폴 로그리그 교수의 ‘버블의 단계’ 모형에 따르면 가격 거품 붕괴는 일정한 패턴을 가진다. 전문가들은 현재 글로벌 자산은 붕괴 전 단계에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이성적인 판단을 주문하고 있다. 박소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광기단계에서는 신용 거래가 증가하며 거품이 커진다”면서 “이때 가격 상승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가 무시되며 어떤 지점부터는 새로운 펀더멘털로 가격이 계속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거품은 팽창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꺼진다”고 경고했다.

손영기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코발트 공급 차질... 삼성SDI·LG화학 수급 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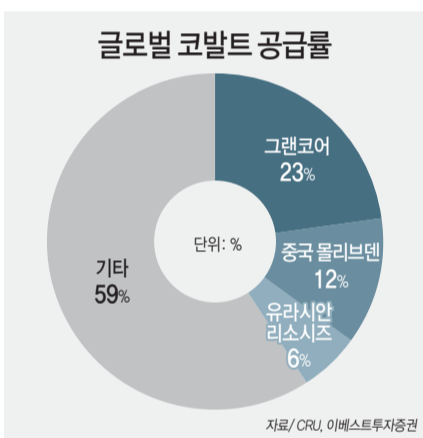
2020년까지 전기차 시장 성장
주가에 큰 영향 미치지 않을 듯

LG화학·삼성SDI·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업체가 원재료 수급 문제로 비상이 걸렸다.

세계 최대 코발트 채굴 업체 글렌코어(Glencore)가 소유한 콩고민주공화국(이하 DRC) 카모토(Kamoto) 구리·코발트 광산에서 기준치 이상의 고농도 우라늄이 발견되면서 2019년 생산차질이 우려되고 있어서다. 전기자동차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는 데 비해 리튬이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 공급은 한정돼 있다. 다만 가격이 오르더라도 오는 2020년까지 전기차 시장이 연평균 45% 성장할 것으로 보여 LG화학과 삼성SDI 등의 주가에 충격을 줄 가능성은 낮다는게 시장의 분석이다.

12일 이베스트투자증권과 외신에 따르면 지난 6일 글렌코어(Glencore)는 카모토 광산에서 생산된 코발트에서 기준치 이상의 고농도 우라늄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또 해당 광산에서 생산된 코발트 판매를 내년 2분기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전했다.

이번 발표로 글렌코어 주가는 추가 하락한 반면, 중국계 광산기업인 뤼양몰리



브덴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반등했다. 당장 공급차질이 우려되진 않아보인다. 가격이 이를 말해 준다. 런던금속거래소(LME)의 코발트 가격(3M 선도, 달러/톤)은 5만1000달러다. 연초 대비 -32.23% 줄었지만 최근 1주일 새 -11.69%, 한달 새 -17.41%로 하락폭이 점차 줄고 있다. 하지만 시장과 업계는 글렌코어발 공급우위 시장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근 코발트 가격 하락을 이끈 원인이 주요 코발트 채굴 광산(연간 2만 2000톤 생산 규모의 콩고민주공화국(이하 DRC) 카탕카 광산 생산 체계)의 생산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LME위크에서 다수의 기관은 내년 코발트의 공급우위 규모를 2만3000톤 이상으로 봤다. 그러나 이

번 사태를 계기로 공급우위 폭은 약 5000톤 가량 축소될 것이라 관측이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최진영 연구원은 “글렌코어가 2500만달러를 투입해 내년 6월경 이온 교환 방식을 통해 기존 생산된 코발트에서 고농도 우라늄을 제거할 예정이다. 그러나 고농도 우라늄을 제거한다 하더라도 당국의 재심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조기 판매는 다소 제한적이다”고 말했다. 카모토 광산은 글렌코어의 2대 광산 가운데 하나로 올해와 내년 생산 목표는 각각 1만 1000톤, 3만 4000톤이었다. 회사는 이번 사태로 1472만톤의 판매차질을 예상했다. 하지만 올해 3분기 생산(6500톤)된 물량을 목표치와 비교할 때 공급차질은 예상보다 클 것이라 전망이 많다. 전기차 확대로 코발트 수요는 폭증하고 있다. 2020년까지 전기차 시장은 연평균 45% 성장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전기차 50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독일은 2030년, 영국·프랑스는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를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2020년까지 5조원 규모의 전기차 지원책을 내놨고, 일본은 최대 100만엔(약 960만원)의 보조금을 준다. 한국 정부도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LG화학과 삼성SDI 등의 주가에 영향

줄 정도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키움증권 김지산 연구원은 “코발트 매장량의 49%가 콩고에 집중돼 있다. 콩고 내전, 헤지펀드 투기 수요 급등으로 채굴 광산의 생산량도 증가했다”면서 “산지 채굴 광석이 완제품으로 만들어지기까지 1~2분기가 소요되는 통상적 지체 시간을 감안하면 가격 하락은 2019년부터 본격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SDI, 삼성전기, LG이노텍 등 전기전자 업종 10개사의 올 영업이익은 58% 증가한 6조4000억원, 내년에는 20% 증가한 7조7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SDI의 내년 예상 영업이익은 1조1678억원(신한금융)이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예상치도 각각 2조8803억원(하이투자), 3조2270억원이다. LG화학은 삼성SDI는 코발트 장기 공급 계약과 공급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코발트 비중을 최소화하는 배터리 개발도 진행 중이다. LG화학은 현재 10%인 저코발트 배터리 판매 비중을 내년까지 40%로 올리고, 2020년에는 60%까지 확대키로 했다. LG화학은 앞으로 코발트가 아예 들어가지 않는 ‘코발트리스’ 배터리 개발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은 니켈과 망간 비율을 높이고 코발트 비율은 낮춘 NCM811 배터리 양산에 들어갔다.

김문호 기자 kmh@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고용상황 엄중하게 생각 민생경제 추가대책 고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고용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통계의 향방이 앞으로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사인인 것 같아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소가 마련된 예금보험공사에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고용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오는 14일 통계청은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지난해 동기 대비 취업자수가 7월 5000명, 8월 3000명, 9월 4만5000명으로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시장의 이목이 10월 취업자 증가 규모에 쏠려 있다. 민생경제 회복 방안과 관련해 추가적인 대책을 고민 중이라도 시사했다. 그는 “청문회 준비기간에 (민생경제 회복에 대해) 많이 구상해볼까 한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것, 추가적으로 할 것을 잘 고민해보고 정책 구상을 잘 다듬어가겠다”고 설명했다.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이하일 것이라는 종전 발언에 대해서는 “잠재성장률이 안정적으로 가게 하는 것이 큰 과제가 아닌가 싶다”며 “여력을 동원해서 잠재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리는 토대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KB증권 대학생 서포터즈 ‘KB청춘스타’ 3기 성료

KB증권은 ‘제3기 KB청춘스타’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KB청춘스타’는 KB증권과 함께 디지털 금융을 체험하고 응원하며 실현하는 대학생 온라인 서포터즈다.

지난 8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제3기 KB청춘스타’는 약 3개월 동안 KB증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체험하고, 대학생들의 관점에서 만든 신선한 콘텐츠 제작 및 SNS 홍보 등 열정 넘치는 활동을 펼쳤다. 특히 단편영화, 1

인 방송, 리얼예능, 캠퍼스어택 등 요즘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하고 기발한 포맷들로 KB증권의 디지털금융서비스를 알리는데 일조했다. 지난 9일 오후, 여의도 KB증권 본사에서 열린 해넘이잔치(해단식)에서는 활동 내역 리뷰 및 우수 콘텐츠를 공유하며 지난 활동을 돌아보는 자리를 가졌다. 김재봉 마블 랜드 트라이브(M-able Land Tribe)장은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많은 대학생들이 증권 서비스에 좀더 친숙해지고, 디지털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



지난 9일 KB증권 여의도 본사에서 개최된 ‘제3기 KB청춘스타’ 해단식 행사에서 김재봉 마블 랜드 트라이브(M-able Land Tribe)장(앞줄 왼쪽 네번째) 및 KB증권 임직원들이 대학생 서포터즈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으로도 KB증권은 청년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

고, 청년들을 위한 금융동반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중국정부 2020년 “자국기업 보조금 폐지”

中 배터리社 방전 위기... 중원서 ‘글로벌 한판승부’

(전기차)

중국 배터리 시장에 불고 있는 바람이 심상치 않다. 세계 전기차의 절반이 중국에서 팔릴 정도로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이라는 안정적인 수요처에다 중국 보조금 지원정책에 힘입어 중국 배터리업체들이 빠르게 세계 배터리 시장을 장악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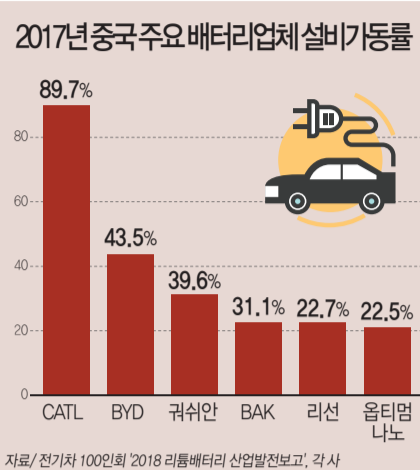
하지만 2020년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중단을 앞두고 중국 배터리업체들만의 놀이터였던 중국 배터리 시장이 일대 변혁을 맞고 있다. 현재 중국 배터리업체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중국시장에서 내물린 해외 배터리 업체들이 기지개를 펴면서 중국 시장의 재진출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中 전기차 배터리 시장 구조조정

그동안 중국 배터리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정책에 힘입어 빠른 성장을 보인 가운데 그 이면에는 ▲업체난립과 낮은 설비 가동률 ▲불공정 거래 관행 ▲수익률하락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정부의 보조금지원에 기대 100여 이상의 배터리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이 품질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생산을 하다보니 생산과 공급에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다. 올 상반기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량이 91.87GWh였지만 출하량은 22.86GWh로 생산능력 이용률이 2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공식적인 자료에서도 이 같은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정부의 전기차 산업 싱크탱크로 평가 받는 전기차100인회가 최근 발표한 ‘2018 리튬배터리 산업발전보고’에 따르면 2017년 전기차 배터리 설비 가동률 상위 9위 업체 중 CATL(89.7%)과 BYD(43.5%)를 제외하면 나머지 업체는 모두 설비 가동률이 40%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 평균치는 약 30%로 집계됐다.

특히 불공정거래관행으로 외상매출금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전기차 제조사는 배터리 업체에 대금을 치를 때 ▲3개월 후 6개월 만기 상환여유를 발행하는 방식 ▲3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면 완납하는 방식 중 하나를 주로 선택한다. 문제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정산할 경우 배터리 업체가 물품 대금을 정산 받기까지 전자는 9개월, 후자는 1~2년이 걸린다는 점이다. 배터리 업체들의 실적에는 이러한 정산 방식 때문에 지급 받지 못한 대금이 ‘외상매출금’으로 잡혀있다. CATL의 경



자료/전기차 100인회 2018 리튬배터리 산업발전보고, 각사

중국에 진출한 주요 5대 배터리 해외 투자 기업

기업명	설립연도	소재지	합자사 지분	설립자본금
난징 LG화학 신에너지배터리 유한회사	2014년 9월	난징	외국업체: LG화학 50% 중국업체: 난징신공투자, 난징조진(신강) 50%	1억5914만달러 (약 1796억원)
삼성(텐진) 배터리 유한회사	2015년 10월	텐진	외국업체: 삼성SDI 50% 중국업체: 텐진중환전자정보 30%, 텐진중환(충칭)유한투자산업개발회사 20%	1700만달러 (약 192억원)
신성환신(시안) 동력배터리 유한회사	2014년 6월	시안	외국업체: 삼성SDI 50% 중국업체: 안후이환신그룹 30%, 시안기오커그룹 20%	11억5000만위안 (약 1870억원)
다롄파나소닉 자동차에너지 유한회사	2014년 12월	다롄	외국업체: 파나소닉(차이나) 50% 중국업체: 다롄라오우얼전기 50%	9억위안 (약 1463억원)
베이징전공 SK과기 유한회사	2013년 12월	베이징	외국업체: SK이노베이션 40% 중국업체: 베이징전공 41%, 베이징자동차 19%	3억5000만위안 (약 569억원)

우 올 상반기 외상매출금이 85억2900만 위안(약 1조38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6억1000만위안(약2600억원) 증가했다. 매출에서 외상매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91.13%나 된다. 실제로 중국의 중소 배터리 제조사들은 제품을 만들어놓고도 납품을 꺼리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ATL은 현재 상하이자동차, 지리자동차 등 중국 대표 자동차 제조사는 물론 BMW, 폭스바겐 등 해외 메이저 업체에도 배터리를 공급 중이다. 지난 6월 중국 선전 증권거래소에 상장해 자금력이 더욱 탄탄해졌다.

BYD는 배터리뿐 아니라 전기차도 제조하는 업체다. 기존에는 생산한 배터리

들이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중심에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고속성장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덕에 가능했다. 하지만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되는 2020년 이후 ‘포스트 보조금 시대’에는 현재와 전혀 다른 자유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전기차의 품질이 문제가 되면서 중국 정부는 현재 지급하고 보조금의 지원요건을 까다롭게 했다. 일정한 품질을 맞추지 못하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려면 중국 전기차 제조사가 고밀도 배터리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중국 배터리기업은 한정적이어서 결국 LG화학·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한국산과 일본(파나소닉·PEVE)산 배터리를 보다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설상가상으로 중국 정부는 오는 2020년에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인 중국에서 한국 기업뿐 아니라 일본 및 유럽 업체들도 중국 기업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중국 투자를 늘리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10월초 4000억원을 투자, 중국 장수성 창저우시에 14만5454㎡의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이 공장에 리튬이온전지분리막(LiBS) 4개 라인과 세라믹코팅분리막(CCS) 3개라인을 건설, 2020년에 양산한다고 밝혔다. 리튬이온전지분리막은 배터리 핵심 소재 중 하나다. 해당 공장은 내년에 착공해 2020년 3분기중으로 양산을 시작한다는 목표로 하고 있다.

LG화학은 10월 중순 중국 난징 빈강 경제개발구에 축구장 24배 크기인 6만평 부지에 지상 3층 규모의 제2공장을 내년

2020년 中 배터리시장 지각변동... 작년 설비가동률 40% 밑돌아 CATL·BYD ‘양강 구도’... 해외기업 등쌀에 군소업체 퇴출 전망 SK이노, 중국 공략 고도화... 日·유럽업체들도 中시장 진출 군침

이렇다 보니 배터리 사업의 이익률도 떨어지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의 주원료인 코발트와 니켈 가격이 급등해 생산비용이 증가한데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돼 배터리 업체들이 원가인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CATL은 배터리 판매가를 2016년 1Wh당 2.06위안(약 335원)에서 2017년 1.42위안(약 195원)으로 31% 인하했다. 이 때문에 배터리 사업 이익률은 2016년 44.8%에서 2017년 35.3%로 9.5%p 떨어졌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2020년 정부의 보조금 지원중단을 앞두고 CATL과 BYD의 양강 구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두회사는 2017년 중국서 판매된 전기차 배터리의 44.61%에서 올 1~8월 66.36%까지 증가했다.

올 1~3분기 CATL의 매출과 순이익은 191억3600만위안(약3조860억원)과 19억8500만위안(약 3200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9.85%, 88.71% 증가했다. C

를 자사 브랜드 차량에 탑재하는 ‘자급자족’ 형태로 사업을 운영했으나 최근 외부로도 판매망을 넓히고 있다. 2017년 BYD의 배터리 생산능력은 16GWh였으나 올 들어 칭하이, 충칭, 시안에 각각 24GWh, 20GWh, 30GWh 공장을 건설했다. 이 회사의 배터리 생산능력이 2020년 90GWh에 달할 전망이다.

두회사로 재편되면서 나머지 군소업체들의 퇴출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중국서 업계 3위였던 울티맵나노가 파산 위기에 놓이면서 시장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울티맵나노는 현재 채무불이행으로 은행 계좌가 동결되고 영업용 자산이 차압된 상태이며 공장가동률은 5%에 불과하다. CATL과 BYD의 양강 구도 하에 외국 기업까지 몰려오면 경쟁력 약한 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전기차 보조금 폐지... 해외업체 진출 가시화

중국에 진출한 해외기업(표참조)들이 힘을 써보지도 못하면서 중국 배터리 업

말까지 완공기로 했다. 이 회사는 오는 2023년까지 2조1000억원을 투자해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주행거리 320km) 50만대 이상 생산 능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제2공장이 들어설 빈강 경제개발구에서 45km 떨어진 신강 경제개발구에 전기차 배터리 1공장을 비롯한 소형 배터리 공장이 있기 때문에 시너지가 기대된다.

또한 LG화학은 배터리 원재료 확보를 위해 강소성 우시에 위치한 중국 화유코발트와의 양극재 합작 생산법인을 설립했다. 합작법인은 2020년부터 연간 4만톤의 양극재를 생산할 예정이다.

국내업체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등의 배터리 업체들도 가세하고 있다. 네덜란드 배터리 생산업체 리튬웍스(Lithium Werks)는 16억유로(약2조834억원)를 투자, 중국 지역 개발업체 자산경제기술개발구실업유한회사와 협력해 장강삼각주에 연산 8GWh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는 16만대의 차량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신설 공장은 리튬웍스가 중국에 건설하는 두 번째 공장으로서 2021년 양산에 들어갈 전망이다.

중국 시장에서 경쟁 양상도 달라질 전망이다. 더 이상 배터리 기업 간 싸움이 아니다. 중국 상무부가 전기차 합작법인 설립 시 제한했던 외국인 지분 50% 상한선도 지난 7월 폐지하면서 해외 자동차 제조사의 중국 진출에 더욱 속도가 붙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베이징, 태국 방콕, 미국 앨라배마에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공장을 짓거나 추진 중이다. 테슬라는 물론 BMW, 폭스바겐 등 자동차 제조사들도 전기차 생산원가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겠다고 나서 추세를 테슬라의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2020년 가동될 예정이다.

따라서 2020년에 가면 중국 배터리 시장을 놓고 중국업체와 해외업체들은 생존을 놓고 한판 승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업계에선 한국·중국·일본 내에서 기술력 및 과거 실적이 뒷받침되는 주요 업체들만 살아남고, 이들이 글로벌 시장을 나눠 가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의 LG화학·삼성SDI·SK이노베이션과 중국의 CATL·BYD, 일본 파나소닉 등이 주요 후보군이다.

/시드원리서치 원철린·안희정 매널리스트 /crwon@seedone.co.kr



‘중국판 테슬라’ 니오, 매출 3000% 급증

스타트업 뉴스

니오, 뉴욕증시 상장 후 첫 실적 발표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니오(NIO)가 미국 뉴욕증시 상장 후 첫 실적을 발표했다.

니오의 올 3분기 매출은 14억6960만위안(약 239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095.3% 증가했다. 올 3분기 적자가 28억1040만위안(약 457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56.6% 증가했으나 자동차 제조업 자체가 손익분기점을 넘는 데 장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실적으로 니오의 성장성을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니오의 첫 양산차 ‘ES8’은 지난2분기 생산량이 500대에 불과했으나 3분기 생산량은 4200대를 돌파했다. 현재 고객

인도까지 마친 차량 수는 총 3368대다.

니오는 테슬라 지분 7.7%를 보유하고 최대 외부 주주로 있는 스코틀랜드 자산운용사 베일리 기퍼드(Baillie Gifford)가 11.4%를 갖고 있다. 중국 대표 IT기업 텐센트(Tencent)도 지분 12.9%를 지분을 갖고 있어 주주 배경이 탄탄한 편이다. 한편 니오는 올 초 광저우자동차와 스마트카 합작사를, 지난 8월에는 창안자동차와 자동차 합작사를 각각 설립했다.

中 패러데이퓨처 美 스티펠과 투자협력 체결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패러데이퓨처(Faraday Future)가 미국 투자은행 스티펠(Stifel)과 투자 협력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FF는 최근 최대주주 헝다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자금난에 빠졌고 전기차 ‘FF91’의 양산 계획을 맞추기 위해 구조조정 및 임금 삭감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스티펠은 FF의 자산가치를 6억달러(약 6708억원)로 평가, 채무보다 높다고 판단해 이번 투자를 결정했다.

FF는 지난 8월 첫 전기차 ‘FF91’의 시험생산에 성공했다. 일부 FF91 구매 예약고객을 초청해 제조시설을 견학하고 FF91도 시승시켰다. 지난해 국제가전전시회 CES에서 첫 선을 보인 FF91은 제로백 2.39초, 연속주행거리 700km, 최고출력 783kW 등 높은 성능을 갖췄다. 판매가는 약 30만달러(약 3억3330만원)로 테슬라 ‘모델X’보다 비싸다.

FF91은 내년 1분기 본격 양산에 돌입하며 고객 인도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최대주주인 중국 부동산 기업 헝다와 투자금을 놓고 분쟁이 일면서 FF91 양산 일정이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5G, 차원이 다른 연결의 시대 개막

제3회 뉴테크놀로지 포럼

일 시 : 2018년 11월 28일 (수) 09:00 - 12:00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20F)

2019년부터 우리나라에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5G) 시대가 본격 개막합니다.

5G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정보통신기술(ICT)분야의 모든 기반이 되는 플랫폼이 변화합니다. 이전보다 월등하게 빨라진 속도와 엄청난 데이터의 송수신이 가능해져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5G는 일상생활 속으로도 들어옵니다. 사물인터넷(IoT)을 비롯해 초정밀 위치측위시스템, 자율자동차 등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산업별로는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팜, 네트워크로봇 등 5G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을 정도입니다. 군사적으로도 5G는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난 1~2회 뉴테크놀로지포럼을 통해 인공지능(AI)의 시대의 도래를 미리 살펴본 메트로미디어는 이제 5G의 세계를 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5G가 열어갈 세상은 어떤지, 이를 위한 기술은 어떤 게 있는지, 정책적으로 어떤 과제를 풀어야 하는지 등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5G 시대를 메트로미디어 독자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메트로미디어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독려 바랍니다.

행사개요 및 문의

행 사 명 : 제3회 뉴테크놀로지포럼

주 제 : 5G, 차원이 다른 연결의 시대 개막

일 시 : 2018년 11월 28일 (수) 9:00~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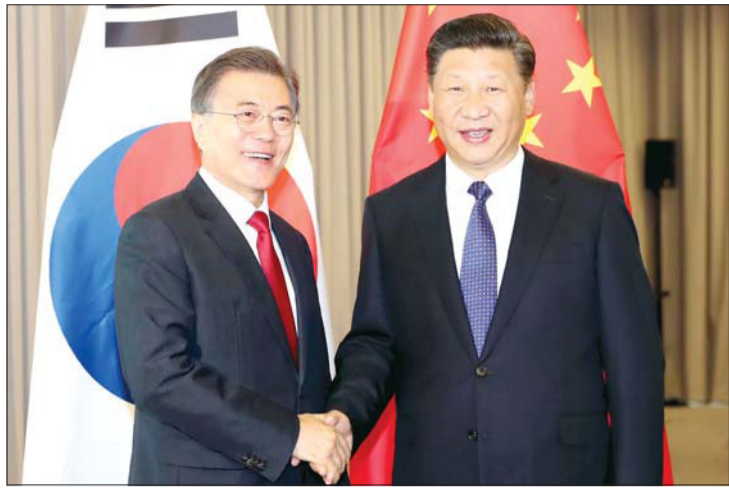
장 소 :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20F)

주 최 : 메트로신문

후 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SW-ICT총연합회

등 록 : 이메일 및 메트로신문 홈페이지 접수 (사전등록 무료) / 현장등록 5만원
forum@metroseoul.co.kr (성함, 소속, 직책, 연락처 필수 기입)

문 의 : 제3회 뉴테크놀로지포럼 사무국 (02) 721-9826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7~18일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 지난 2017년 7월 당시 베를린에서 처음 만난 두 정상이 웃으면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싱가포르 순방 新남방정책 ‘광폭 행보’

오늘부터 5박6일 일정 방문 파푸아뉴기니서 APEC 참석

13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싱가포르, 파푸아뉴기니를 잇따라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남방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광폭 행보를 한다. 아울러 아시아·태평양권 소속 주요 국가들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도 가속화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는 접견을 조울 중이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3일부터 16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20차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제21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제13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에 잇따라 참석한다.

또 17~18일에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파푸아뉴기니에 머문다.

먼저 아세안 정상회의에선 우리 정부의 핵심 전략 과제 중 하나인 신남방정책의 주요 파트너인 아세안 국가들과 앞으로의 실질 협력을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앞서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아세안과의 교역 규모는 지난해(1~10월) 1228억 달러에서 올해 같은 기간 1321억

달러로 7.6% 증가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한·아세안 교역규모는 16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0년까지 '교역액 2000억 달러'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앞서 관련 순방 일정을 소개하면서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신남방정책 천명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설명하는 한편 사람공동체, 상생번영공동체, 평화공동체의 ‘3P’에 대해 분야별로 상세한 이행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의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아세안측에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하고, 최종합의도 이끌어낼 예정이다. 또 관련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제 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 의사도 함께 표명할 방침이다.

이는 ‘넥스트 베트남’으로 떠오르고 있는 메콩지역내에서 교두보를 확보하고 아세안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내 개발 격차 완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 이어지는 다자간 회의를 통해 역내 금융안정망 구축과 쌀 비축제도를 통한 식량안보 증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위한 국가간 협력, 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동참 등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왼쪽부터 가톨릭대의 총동문회 김명훈 기획정책위원장, 최오규 회장, 법무법인 바른 김재호 대표변호사, 윤은희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 가톨릭의대 동문회와 MOU

법무법인 바른은 가톨릭대의과대 총동문회와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서비스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9일 맺은 협약에 따라, 바른은 가톨릭 의대 총동문회 소속 6000여명의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료 관련 민·형사, 행정 소

송부터 법률 자문까지 전방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재호 바른 대표변호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인들의 의료분쟁 상담과 소송을 체계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양측의 경쟁력을 높이는 상호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종 기자

경제특구 선택 → 아이템 발굴 → 공동진출

中企, 순차적 北 진출 바람직

先 평양·남포-後 지방 진출 경박단소서 중후장대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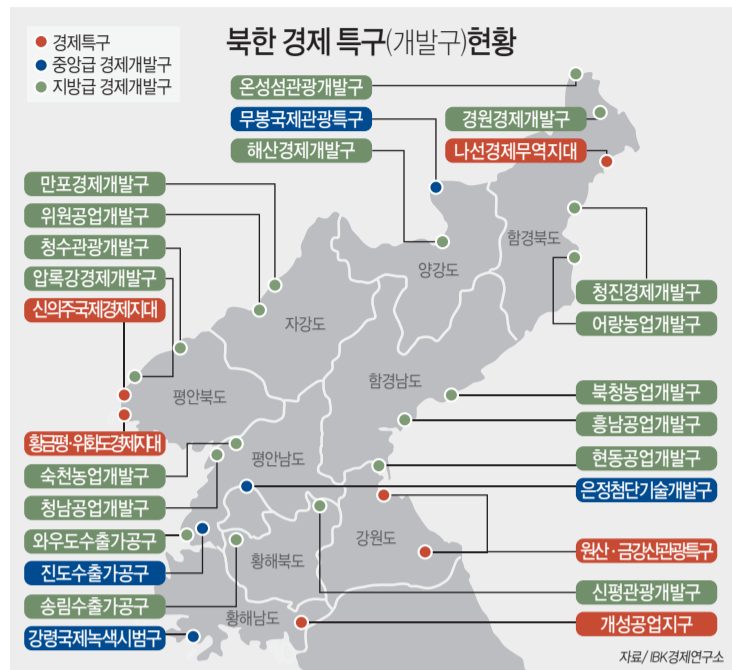
‘진출할 경제특구를 먼저 선택해라. 아이템을 잘 정해라. 기업간 공동진출을 모색해라.’

남북 경제협력이 정상화되는 것을 전제로 국내 중소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할 경우 ▲경제특구 선정 ▲진출 아이템 선택 ▲진출 환경 진단 ▲명확한 진출 목적 설정 등 보다 면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또 남북경협은 체제와 이념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와 의식, 사회작동원리가 다른 것에 유의해 법적·제도적 현황 파악→남북 산업 표준 점검→경영 및 기술교육 등 진출을 위해 사전에 단계별로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함께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북한 진출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남북경협 투자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에 따르면 현재 북한엔 당과 내각이 관리하는 개성공업지구 등 경제특구가 5곳, 국가경제개발위원회나 각도 인민위원회 등이 관리하는 온성심관관광개발구 등 중앙급 경제개발구가 6곳, 경제지대개발구 등이 관리하는 온성심관관광개발구 등 지방급 경제개발구 17곳 등이 있다.



지역도 개성을 비롯해 원산·금강산, 신의주, 황금평·위화도, 나선, 은정, 진도, 무봉, 만포, 해산, 청남, 송림, 흥남, 신평 등 북한 전역에 골고루 위치해 있다.

조봉현 부소장은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발구 특징은 점점 및 해안뿐만 아니라 평양에 이르기까지 전지역에 포진돼 있다”면서 “또 공업, 무역 첨단 등 단일 유형과 수출가공, 현대 농업, 관광 휴양 등 다수 유형이 복합된 형태에 평균 개발면적이 3.4㎢에 이를 정도로 소규모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 경제개발구는 투자, 세금납부, 토지 및 건물 이용, 금융경제개발구가 6곳, 경제지대개발구 등 지방급 경제개발구 17곳 등이 있다.

가공, 일용품 등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출판, 보도, 방송, 교육, 문화, 보건, 체신 등은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조 부소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의 진출이 유망한 곳으로 ▲라선 경제특구 ▲원산·금강산 관광특구 ▲신의주 경제특구 ▲강령 국제녹색시범지구 ▲무봉국제관광특구 ▲은정첨단기술개발구를 꼽았다.

북한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들이 챙겨야 할 내용도 많다.

인프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투자효과를 최적화할 수 있는 경제특구를 고르고, 국내산업과의 연관성을 높이면서 시장을 넓힐 수 있는 아이টে를 선정하되, 막연하게 감성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중소기업이 지향해야 할 사업 추진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

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질의 북한 노동력 활용이 가능한지, 원자재 조달이나 공장 확보가 용이한지, 기술협력 가능성과 북한 내수시장 선점은 가능한지 등을 우선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조 부소장은 “북한은 사회간접자본이 열악하고 정치적 리스크 등으로 기업이 개별적으로 진출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대·중소기업간 협력이나 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해 공동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공동진출하면 북한의 투자환경 변화에 공동 대처할 수 있고, 물류비나 기타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남북경협이 본격화될 것을 대비해 지금의 관련 법과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지평 김광길 변호사는 “90년대 만들어진 낡은 남북교류협력 법제는 미래의 남북관계 규율에 한계가 있다”면서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을 대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개성공업지구지원법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평화자동차총회사에서 총사장을 역임한 조영서 한라대 교수는 남북경제협력의 특수성과 유의사항을 설명하면서 “북한 진출 시 선(先) 평양·남포 진출, 후(後) 지방, 경박단소서에서 시작해 향후엔 중후장대형 산업으로 순차적 진출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통일 후 법률시장, 실정 아는 北변호사 양성해야”

통일시대 법제도 정비 심포지엄

北 직업적 권리는 보장해주고 南 사법제도와와의 통합 이뤄야

통일 이후 폭증할 북한의 법률 수요를 현지 변호사 교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기수 변호사는 12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통일시대를 대비한 법제도 정비 심포지엄’에서 ‘남북한 변호사제도의 통일방안’을 발표하고 “북한 주민의 법률문제는 북한 변호사들이 맡을 수 있도록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재산의 보호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한은 서로 다른 체제만큼이나 변호사의 역할도 차이가 크다. 한국은 변호사법 제1조에 따라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하면서도,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통해 생계를 유지한다. 반면 북한 변호사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익의 대변자로서 집단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변론 활동은 의뢰인 개인의 이익이 아닌 프롤



김기수 변호사가 12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열린 ‘통일시대를 대비한 법제도 정비 심포지엄’에서 ‘남북한 변호사제도의 통일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범종 기자

레타리아 계급과 사회주의 보장에 초점이 맞춰진다.

독일 사례는 통일 이후 변호사제도 통합의 단초를 보여준다. 구 동독 변호사는 1950년대 이후 사회주의 이념 실현에 적극 동참할 의무가 주어졌다. 특히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법원의 결정을 적극 설명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도록 설득해야 했다.

하지만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동독 변호사의 독립성이 서서히 인정받기 시작했다. 구 동독 인민회의는 1990년 2월

‘자유 변호사의 업무 및 허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변호사가 법원이나 다른 국가기관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지위를 허용했다. 같은해 4월과 6월 관련 법률 제정으로 구 서독 변호사의 동독 내 법률사무소 설치와 활동이 가능해졌다.

구 동독 변호사 역시 서독에서 활동할 기회가 주어졌다. 독일은 법과대학 학위 취득 후 2년간의 실무 경험이 있는 동독 변호인을 제2차 국가고시 없이 서독 변호사와 동등하게 인정했다. 기존 변호사들은 서독 변호사단체가 연방법무부가 부담했다.

주목할 부분은 동독 공산당의 불법 행위에 협조하고 반법치국가적 행위를 자행한 전력이 확인될 경우, 변호사 인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점이다.

김 변호사는 “인권 탄압에 협조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적 규정을 마련하고,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등에 보관된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

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일 이후 예상치 못한 법률 문제를 해결책으로 ▲북한 주민을 위한 법률보험제도 실시 ▲법률구조공단 확대 운영 ▲북한 변호사 자격의 일정기간 유지 ▲한국 변호사의 북한 지역 활동을 위한 업무매뉴얼과 지침 개발 ▲한국 내 로스쿨의 북한지역 주민 특례입학 제도 한시적 도입 등을 들었다.

김 변호사는 “통일 초기 북한 변호사 제도는 북한 사법체계의 변화와 연계돼 변동될 것”이라며 “가급적 북한에서 가지고 있던 직업적 권리는 그대로 보장하되,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쳐 남한의 사법제도와 통합을 이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독은 서독기본법을 동독에 철저히 동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통일 이후 발생하는 제반 법적 분쟁에 대해 변호사제도의 통합이 없이는 갈등을 줄이기 힘들고, 통일한국의 법치국가적 정당성을 확보하기도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범종 기자 jaker@

47년의 恨 “진정한 종전은 국군포로 송환으로 완성”

탈북 국군용사 유영복 선생 기념회

2000년 中 경유 대한민국 품 안겨 ‘귀환국군용 사회’ 단체 회장 역임 현효제 작가, 6·25용사 사진촬영 가족 자처 15명과 ‘가족사진’ 남겨



탈북 국군용사 유영복 선생(앞줄 오른쪽 네번째)이 11일 오후 서울 역삼동 픽처러스 스튜디오에서 전역 시 받은 하사 전투복을 착용하고 특별한 가족사진을 찍고 있다.

11일 한국전쟁(6.25)에 참전했던 노병들이 전우들이 잠든 부산 유엔묘지를 참배했다. 같은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픽처러스 스튜디오에서는 탈북 국군용사 유영복 선생의(88) 특별한 가족사진이 촬영됐다.

오후 3시 스튜디오에는 유영복 선생의 가족을 자처한 사람들로 가득찼다. 현효제 작가(39)가 분주하게 움직이며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이날 유영복 선생의 가족을 자처한 15명 모두 이날 처음 만났지만, 카메라 앞에서 어색함은 이내 사라졌다. 갓난 아이, 초등학생, 현역 육군 장교, 예비역 군인,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한상국 상사의 부인 김하나 씨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유 선생은 1953년 육군 5사단 소속으로 강원도 금화지구 전투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됐다. 23육군일병은 이제 90을 바라보는 노인이 됐지만, 자태만은 20대 못지 않게 강건했다.

북에서 천대계층으로 취급받으면서도, 대한민국과 군으로 돌아가겠다는 일념

으로 살아온 그는 47년간 북한에 살며, 그 중 30여 년을 함경남도 검덕·동남 광산에 보내져 광부나 측량사로 힘들게 일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탈북을 실행한 유 선생은 2000년 중국을 경유해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다. 탈북 후 유 선생은 국군포로 단체인 ‘귀환국군용 사회’를 만들고 회장으로 역임했다. 이날 유영복 선생 가족사진 촬영은 현효제 작

가의 제안으로 국가유공자 리멤버 코리아 보훈가족과 김하나 씨의 후원했다.

현 작가는 국군장병의 사진은 물론, 2016년부터는 전 세계를 돌며 생존한 한국전쟁 참전자들의 사진을 찍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그는 18개국을 돌며 700여 명을 찍었다.

현씨는 “탈북한 참전 용사들 이야기를 듣고 ‘가족사진’을 찍어 드리고 싶었다”면서 “국가는 당신을 잊었는지 몰라도 국민은 당신을 기억한다고 말하고 싶었다”며 이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유 선생의 새로운 가족들은 현 작가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유영복 할아버지’와 그를 기억하려는 사람들이 함께 사진을 찍자’는 글을 보고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국가유공자 리멤버 코리아 보훈가족 안종민 사무국장(퇴역 육군 대위·44)은 “기억을 기록하고 남겨진 이들의 가슴에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가요. 함께하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질 때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라면서 “9살 딸의 기억속에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분을 직접 뵈고 그분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걸로 만족합니다”라고 말했다.

유영복 선생은 사진 촬영에 앞서 남북 평화 분위기를 향해 걷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국가의 처우에는 불만이 없으면서도 남북대화 분위기 속에서 진정한 종전이 되기 위해서는 국군포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80여명의 탈북국군 포로 중 생존자는 23명, 유영복 선생처럼 거동이 가능한 분은 수 명이다. 한시라도 이 분들이 살아계실 때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민간 차원에서 이러한 행사를 준비하고 실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현 작가는 “미국의 경우 현지 참전용사회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참전용사 분들의 연락처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metroseoul.co.kr

“정부, 軍 후배 위해 ‘국군포로’ 해결 나서야”

인터뷰

탈북 국군포로 유영복 선생

“故 김대중, 평양 방문때 탈북 결심 2014년 생존 포로 500여명 달해”



탈북 국군용사 유영복 선생이 11일 서울 역삼동 픽처러스 스튜디오에서 기념촬영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북한에서 국군포로의 실상을 전하고 있다.

지난 11일은 제1차세계대전의 종성이 멎은지 100년이 되는 날이었다. 지금 한반도에서도 종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진짜 종전은 남북 양측이 찢어서 아픈 기억마저 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눈에 보이는 GP철수, 한강하구 조사만이 찢어 아픈 부분이 아닐 것이다.

탈북 한국전쟁(6.25) 국군포로들이야말로 진정한 종전을 위해 치우돼야 할 아픔일 것이다.

기자가 11일 서울 역삼동 픽처러스 스튜디오에서 만난 탈북 국군포로 유영복 선생(88)은 90을 바라보는 노인이라기에는 너무나 강건한 모습이었다.

그는 기자에게 “포로가 된 것이 자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군의 후배들에게 조국은 당신들을 영원히 잊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기위해서는 정부가 국군포로 문제에 나서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것을 TV로 보고 탈북을 결심했다는 그는 북한에서 목격한 국군포로의 모습을 이

렇게 전했다.

적대계급으로 분류된 국군포로들은 개전 초기에는 수용소에 수용됐지만, 북한이 고전하자 국군포로들은 탄광 등 힘든 노역장으로 끌려가거나, 인민군에 편입됐다. 인민군에 편입된 국군포로들은 전투 중에 남쪽으로 넘어갈 기회를 엿보려 했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북한은 한국전쟁 포로에 대한 상호 교환이 이루어진 1954년 이후 “강제 억류 중인 국군 포로는 공화국에 한 명도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8만2000명의 한국군이 한국전쟁

이후 실종됐고, 5만~7만명이 북한과 그 동맹 국가(중국)에 억류됐다”고 추정했다. 당시 기준으로 북한에 생존한 국군포로는 500여명이었다. 이들이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은 북한만의 책임은 아니다. 정치이념 논리에 막혀 그들은 소외됐어야 했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국군포로는 북한의 부역자로 비취졌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국군포로들의 북한 가족문제를 고려해 자유왕래를 고려했지만, 정작 북한과 중전협정을 맺고, 최전방 GP 철수와 공동유해발굴을 실시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유공자 리멤버 코리아 보훈가족 안종민 사무국장(퇴역 육군 대위·44)은 “정부가 하지 않던 일들을 민간에서 하려는 움직임은 꾸준히 있었다. 남북이 공식적으로 할 수 없다면, 민간에서 물밑 접촉을 할 수 있게라도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포로의 무제를 덮고 넘어간다면, 역사의 아픔은 다른 형태로 반복될 지 모른다.

100년 전 11일 콩피에뉴의 열차에서 독일 대표 마티아스 에르츠베르거와 연합군 대표인 프랑크 포슈 원수는 휴전협정에 서명했다. 36일 간의 휴전협정은 두 차례 연장 끝에 사실상 종전협정이 됐다.

/문형철 기자



이개호 장관 ‘쌀값 논란’ 해명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쌀 목표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해명하고 있다. /연철뉴스

헌병 → 군사경찰, 정훈 → 공보정훈 명칭 변경

국방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

헌병 정훈 등 시대적 변화에 맞지 않는 군 병과 명칭이 새롭게 바뀐다.

국방부는 14일 ‘병과 명칭 개정’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명칭을 개선하고, 현재 수행 중인 병과의 임무를 정확히 표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헌병(憲兵)과 정훈(政訓) 병과의 경우 구 일본군과 군내 정치사상화를 떠올리게 하는 용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헌병은 군의 병과가 아닌 군과 경찰의 상위개념에서 군질서와 일반행정을 담당하던 프랑스의 ‘국가헌병제도’에서 유래한 것으로, 구 일본군과 중화민국(대만)군은 ‘헌병’을 사용했다.

때문에 일제강점기 구 일본군의 ‘헌병정치’를 연상시키고, 미국식 군사경찰제도를 본뜬 국군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군사경찰’로 병과명이 바뀌게 된다.

정훈 병과 또한 ‘정치훈련(政治訓練)’의 약어로 만들어진 병과명이 공산권의 ‘정치지도원’을 연상시킨다는 군내 각성과 함께 국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공보정훈(公報精訓)’으로 변경된다. /문형철 기자

실종아동 찾기 복합인지기술개발 착수

산업부-과기정통부-경찰청

지능형 CCTV, 다양한 첨단 얼굴인식 기술 등을 활용해 실종아동이나 치매환자의 신속한 신원확인 및 안전한 귀가를 돕는 기술개발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은 실종아동, 치매환자, 지적장애인의 안심 귀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7년 기준 실종아동 수는 연간

2만여 명, 치매환자 및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자 수는 연간 1만9000여 명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복합인지기술이란 대상자의 현재 얼굴뿐만 아니라 시간, 행동, 장소 등 변화하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서로 연결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이다.

실종자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고 위치를 추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 실종자의 경우에는 나이를 변화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제 치안현장의 문제해결에 폭넓게 적용이 가능하다. /세종=최신용 기자

국토발전전시관 4.3만 방문

국토부, 개관 1주년 성과

국토교통 분야의 유일한 국립전시관인 국토발전전시관이 개관 1년 만에 방문객 4만3000여명을 달성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전시관은 전시,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체험형 프로그램을 추진해 1년간 누적 방문객이 4만3500명을 넘겼다.

방문객은 일반 관람객 3만6000명, 청소년 5800명, 개발도상국 공무원 및 월드뱅크, 한국국제협력단 연수생 등 외국인 1700명 등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이차전지 3사 ‘배터리 주도권 확보’ 맞손

산업부, 공동 R&D협력 MOU

차세대배터리 주도권 확보를 위해 이차전지 3사가 힘을 합치기로 했다.

1000억원 규모의 차세대배터리 산업펀드를 조성하고 3사 공동으로 차세대 배터리 핵심기술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이차전지 3사는 1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차세대배터리 펀드 조성 및 공동 R&D 협력 MOU 체결식’과 업계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산업부와 이차전지 3사는 1000억원 규모의 차세대배터리 펀드를 조성하고 차세대배터리 원천기술(IP) 공동 확보, 차세대배터리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유망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펀드 조성은 2019년 1사 분기예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차세대배터리 관련 소재·공정·장비 분야의 상용화 핵심기술개발에 관한 공동 R&D 추진을 위해 ‘차세대배터리 핵심기술 공동 R&D 협력 MOU’도 체결했다. /세종=최신용기자 grandtrust@

‘삼성과 함께 일하는 길’... 협력사 채용에 인산인해

Q 르포 | ‘2018 삼성 협력사 채용 한마당’가보니

“기술력이 좋은 회사들임에도 협력사라는 이유로 취업준비생들이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협력사 앞에 ‘삼성’을 붙여서 관심을 유도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삼성디스플레이·SDI·전기·SDS와 함께 1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 ‘2018 삼성 협력사 채용 한마당’에서 직장을 찾기 위해 방문한 조유현(27)씨의 말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2년부터 7년째 협력사 채용 한마당 행사를 열고 있다. 특히 올해 행사에는 삼성전자 협력사 89개를 포함해 총 120개의 협력사가 참여했다.

구직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협력사는 우수 인재 확보하도록 한다는 게 목표다.

행사는 10시로 예정된 입장 시간 전부터 몰려든 구직자들로 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조 씨는 “원래는 면접을 보러온 건데 기업 사정으로 상당으로 바뀌었지만 채용담당자가 취업과 관련해 많은 조언을 해줬다”며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리인 것 같다”고 말했다.

120개 기업의 부스가 차려진 박람회장은 이력서를 들고 분주하게 면접을 보러 다니는 구직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직무는 크게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경영

120개 협력사 참여... 열기 ‘후끈’ 현장면접에 당일 즉시채용 기업도 취업컨설턴트 면접 컨설팅도 제공 김현석 사장 “상생협력 강화할 것”

지원, 영업·마케팅, 설비, 기술 등 6개로 나뉘었다. 현장을 찾은 구직자들은 회사에 대한 정보를 얻고 면접을 볼 수 있다.

삼성은 사전 신청을 통해 면접자를 받았지만 이력서를 준비해온 구직자는 현장에서 면접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구직자는 현장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면접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력서 출력이 가능한 컴퓨터 앞에는 긴 줄이 형성됐다. 삼성오모 모여 면접 후기를 공유하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부스에서는 각 업체들이 구직자와의 면접을 진행하고 있었다. 몇몇 업체는 면접 대기자로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면접은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졌다. 면접을 보는 사람 바로 뒤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기하는 사람들은 준비해온 1분 자기소개를 외우고, 심호흡을 하는 등 면접 준비에 한창이었다.

15분 가량의 면접을 마치고 나온 임



‘2018 삼성 협력사 채용 한마당’을 찾은 구직자가 삼성전자 반도체 협력사 ‘피에스케이’ 부스에서 채용 면접을 보고 있다. 이 자리를 찾은 동반성장위원회 권기홍 위원장(왼쪽)과 삼성전자 김현석 대표이사 사장(오른쪽)이 면접을 보는 구직자(가운데)를 응원하고 있다. /삼성전자

(27)모 씨는 “여기는 박람회장이어서 그런지 일반 기업 면접 환경과 다르게 어수선해서 집중이 안 됐다”며 “할 말을 다 못하고 온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면접 기회를 얻기도 쉽지 않은데 채용한마당에서 다양하게 면접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밝혔다.

최(29)모 씨는 “협력사에 취업하면 삼성에서 삼성 임직원과 동일한 교육을 제공해준다고 들었는데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삼성전자 김현석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행사에 참여한 협력사들이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우수 인재 확보”라며 “이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갖추고 사업이 확대된다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상생 협력을 더욱 강화해 일자리 창출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환영사 이후 부스를 찾아 면접을 보는 구직자를 응원하기도 했다.

협력사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H사의 채용담당자 진(37)모 씨는 “많은 중소기업이 직원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채용한마당이라는 행사가 업체에게는 구직자를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전 서류 검토를 통해 오늘 현장에서 1차 면접을 진행했고 추후에 별도의 면접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곳에 온 다른 업체 중에는 오늘 바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들도 눈에 띄었다. 학교 선생님의 추천으로 오게 됐다는 손유경(18) 양은 “2시에 기술직 면접을 앞두고 있는데, 박람회장에서 보는 면접은 처음이라 떨리고 걱정된다”고 말했다.

강유경(18) 학생도 “정장을 차려입은 성인들이 많은데 우리만 교복을 입고 있는 것 같아서 더욱 긴장된다”며 “오늘 1차 면접 후에 2차 면접 일정은 개별적으로 연락 온다고 들었는데 면접을 잘 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에는 구직자의 성공적인 취업을 돕기 위한 ‘취업토탈솔루션관’도 마련됐다.

삼성전자 등 전자 계열사의 경력컨설팅센터 소속의 임직원 컨설턴트 20여명이 이력서와 면접 컨설팅부터 현장 기업 매칭까지 취업에 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실시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채용된 협력사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입사 후에도 신입사원 교육과 기술·품질 관리교육 등 전문 교육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협력사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구세종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대학가 소식

세종대 공개특강

‘사회복지실천과 호스피스’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호)는 공공정책대학원이 주최하고 세종사이버대(총장 신구) 사회복지학부가 주관하는 지역사회 공개특강이 17일 세종대 광개토관 103호에서 진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개특강은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인 김민정 박사가 연사로 나와 강연하고 워크숍 형식으로 4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김 박사는 서울아산병원의료사회복지팀을 이끌고 있으며 해결중심치료학회 해결 중심 가족 치료 전문가 슈퍼바이저, 한국가족치료학회 부부 상담 전문가와 슈퍼바이저로 활동 중이다.



상명대 글로벌 해외봉사단이 내달 26일부터 진행될 라오스 봉사활동을 위한 사전교육에 참여했다. /상명대학교

상명대 라오스 해외봉사단

라오스 봉사활동 사전교육

상명대학교(총장 백웅기)는 지난 10일~11일까지 이틀간 충남 대천에 위치한 상명수련원에서 ‘2018년 동계 글로벌 해외(라오스) 봉사단 국내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학생 30명과 인솔자 2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내달 26일 라오스 우돔싸이에 도착해 내년 1월 8일까지 교사신축과 문화교류 봉사활동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출국 전까지 진행되는 3차 교육 중 첫 번째 교육이다. /한용수 기자 hys@

디지털기기는 불허... 아날로그시계 허용

수능 D-2... 유의사항

내일 예비소집일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 수령·시험장 위치 확인해야

오는 15일 치러지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2일부터 전국 86개 시험지구로 시험지와 답안지 배부가 시작됐고, 시험 전날인 14일에는 예비소집이 진행된다. 수능 당일 까지 수험생들이 반드시 확인해둬야 할 주의사항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수능 문답지는 이날 오전 7시 30분 울산 시험지구를 시작으로 전국 86개 시험지구로 배송이 시작됐다. 문답지는 시험 전날인 14일까지 각 시험지구로 옮겨져 보관됐다



12일 오전 세종시 한 인쇄공장 관계자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용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시험 지구별로 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일인 15일 오전 1190개 시험장으로 다시 이동된다.

수험생들은 수능시험 전날인 14일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여해 본인의 수험표를 받고 시험을 치를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시험일에는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SKT, 협력사-청년구직자 교두보 마련

협력사 채용 박람회 개최

SK텔레콤이 우수 인재가 필요한 협력사와 일자리를 찾는 청년을 이어주기 위해 나섰다.

SK텔레콤은 오는 29~30일 양일간 서울 중구 SK 남산 그린빌딩 20층 ‘SK텔레콤 동반성장센터’에서 자사 우수 협력사를 위한 첫 채용 박람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채용박람회에는 엑스투, 비디, 미디어브레인 등 SK텔레콤 우수협력사 17개가 참여한다. 모집 분야는 전략기획·재무·소프트웨어 개발·빅데이터 분석 등이다.

SK텔레콤은 이번 채용 박람회에서 협

력과 구직자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채용된 직원을 대상으로 체계적 직무 교육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협력사 채용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12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한편, SK텔레콤은 오는 15일 서울 중구 SK 남산 그린빌딩 20층에 ‘SK텔레콤 동반성장센터’를 개관한다. SK텔레콤 동반성장센터는 SK그룹 공유인프라 활동의 일환으로 SK텔레콤 협력사 임직원들이 교육, 세미나, 회의의 공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김나인 기자 silkni@

롯데백 채용문화 바꾼다... ‘마음 편한 면접장’

롯데백화점이 기업문화 개선을 넘어 채용 및 면접 문화 바꾸기에 나섰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하반기 채용부터 경직되고 딱딱한 면접 분위기를 타파하고 지원자들을 배려한 면접 환경을 위한 개선 작업에 나서 ‘세상에서 가장 마음 편한 면접장’을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채용 환경 변화를 선보이는 것은 회사의 미래 성장을 위해 우수한 인재 확보가 필요하고 지원자들에게 좋은 기업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지원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진행하게 됐다.

‘세상에서 가장 마음 편한 면접장’은 롯데백화점이 분당점 내 운영 중인 가드닝

8시 1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아예 집에 두고 오는 것이 좋다. 반입금지 물품은 휴대전화를 비롯해 스마트워치나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카메라렌, 라디오,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가 포함된다. 시계는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순수 아날로그시계만 반입이 가능하다.

지난해 수능험에서도 72명의 수험생이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로 성적이 무효로 처리되는 등 총 241명이 적발돼 불이익을 받았다. 이 가운데 적발이 가장 많았던 4교시 응시방법 위반(113명)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교시 한국사는 필수로 응시해야 하고, 이후 탐구영역 선택과목 시간에는 수험생의 선택과목과 상관없이 선택한 계열의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고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도 제공된다. 이 때 수험생은 시험시간 별 자신이 선택한 해당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한용수 기자

브런치 카페인 ‘소공원’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선보이는 최상의 면접 환경으로, 과거 딱딱하고 경직된 면접 분위기가 아닌 카페와 같은 편안한 분위기의 면접대 기장을 운영한다.

또한, 도심 속 작은 정원이라는 ‘소공원’의 테마에 맞게 각종 푸른 식물들로 면접장을 풍성하게 꾸며 긴장되는 면접 순간에도 지원자들이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 케이터링 업체를 활용해 면접 기간 동안 따뜻한 차 등 ‘긴장이완 음료’ 및 ‘브런치’ 등 다양한 먹을 거리를 제공해 최상의 컨디션으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신선진 기자 tree6834@

동종 분양업계
최대
화제

전주, 한옥마을을 걸어서 10분!

호텔식 오피스텔 전격 분양

전주호텔
뜨거운 성원에
객실 분양
조기 완료!
감사합니다!

전주호텔
분양완료에 이어
오피스텔
드디어 분양
시작합니다!

호텔분양완료

오피스텔분양

자~ 보세요
역시, 사람 많은곳에 수익도 나고
즐거움도 있지요
즐거움과 수익을 한꺼번에
잡으세요

마감임박

실투자금
4천만원대
선착순 분양!

분양권
전매가능

1가구
2주택
해당 無

종부세
합산배제

비조정지역
대출규제
無

전세계가 주목하는 관광도시 전주, 최종심 입지에서 누리는 프리미엄급 실제의 가치!

- 전주 최종심 입지에서 누리는 호텔형 오피스텔의 가치!
- 전주 1, 2 산업단지, 친환경 복합단지 등 약 5,400여명 근로자 수요
- 전주시청, 전북도청 등 전북혁신도시 공기업 및 공공기관 이전 수요
-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등 대학 수요
- 탄소특화단지 효성, GS칼텍스, 현대자동차 입주 예정

- 전북도내 최대 도시 전주! 공실 걱정 없는 풍부한 수요!
- 오피스텔과 호텔의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최고급 편의시설
- 명불허전! 걸어서 누리는 세계의 관광자원 전주한옥마을 옆
- 1, 2인 가구 트렌드에 맞는 희소성 있는 강소(強小) 평형
- 공실과 수익률걱정이 없는 전문임대관리 업체의 직접관리계약

전주한옥마을 그 중심에 호텔형 오피스텔 최초 분양!

분양문의

1811-1972

청약계좌안내	은행 국민은행	계좌번호 349401-04-274501	예금주 한국자산신탁(주)
--------	------------	--------------------------	------------------

* 상기 CG 및 이미지, 일러스트 지역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으나 반드시 홍보물에 병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프리미엄 혜택은 시행사 및 운영사에서 제공하며, 자금관리 및 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주)과는 무관합니다.
* 전주 성벽 및 전라감영 복원사업, 현장 주변 교통시설과 주변 현황은 인·허가 및 정부시책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시행 및 시공되는 이와 무관합니다.
* 베스트메스던 플러스 전주 호텔과 베스트메스던 인터네셔널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시행
KAIT 한국자산신탁

시공
이랜드건설
E-LAND CONSTRUCTION

위탁
MERIT+PLUS
DEVELOPMENT & MARKETING



대우건설, '인제양양터널' 세계 도로 업적상 수상
 대우건설은 작년 6월 준공해 개통 중인 '인제양양터널'이 2018년 IRF G RAA(Global Road Achievement Awards·세계 도로 업적상)에서 환경관리부문(Environment Mitigation) 본상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 김희철 상무(오른쪽)가 지난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국제도로연맹으로부터 세계도로 업적상(GRAA) 환경관리부문 본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우건설



우리은행, 제주항공·현대백화점면세점과 신상품 업무협약
 우리은행은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본점에서 우리카드, 제주항공, 현대백화점면세점과 함께 '신상품 개발 및 공동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황해연 현대백화점면세점 대표이사(왼쪽부터)와 이동연 우리은행 국내부부장, 김재천 제주항공 부사장이 12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신상품 개발 및 공동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롯데손보, 성북구서 '사랑의 연탄 나눔행사' 진행
 롯데손해보험은 지난 9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 일대에서 소외 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사회 독거 노인들을 대상으로 다가오는 연말을 맞이해 겨울철 난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마련됐다. 김현수 롯데손해보험 사장(왼쪽)이 기부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손해보험



롯데칠성음료, 신제품 아이디어 공모전 1위에 차차르간주스 선정
 롯데칠성음료는 '제1회 모두의 음료 신제품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비타민나무열매를 원료로 한 '차차르간주스'가 1등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총 1007건의 아이디어 중 1등으로 선정된 차차르간주스는 '차차르간(비타민나무를 의미하는 몽골어)'의 열매를 주원료로 하는 비타민음료다. /롯데칠성

인사
 ◆ 소비자경제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고동석 △ 상무이사/광고국장 최세현

부음
 ▲ 광상희씨 별세, 광태영(내일신문 자치행정팀 기자)씨 부친상 = 12일 낮 12시 17분, 이대목동병원 특2호실, 발인 14일 오전 9시 ☎ 010-2574-4141
 ▲ 박중하씨 별세, 이종찬(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안전환경팀장)씨 장인상 = 12일 오전 6시, 세종

은하수공원 장례식장 10분향실, 발인 14일 오전 8시. ☎ 044-850-1350
 ▲ 소상보(전 부산 강서구청장)씨 별세, 정인·중희씨 부친상 = 12일 오전 7시 39분, 부산시민장례식장 2층 VIP실, 발인 15일 오전 9시. ☎ 051-636-4444
 ▲ 김달영씨 별세, 옥빈(전주풍남중 교장)·정희(장수 백화여고 교사)·봉빈(한국동서발전 처장)·희숙·빈(엘지디스플레이 팀장)씨 부친상, 최대우(전북일보 김제 주재기자)·안상준(서울시 교통공사 차장)씨 장인상 = 12일 오전 5시, 전주효사랑장례식장 2층 특5호실, 발인 14일 오전 8시 ☎ 010-8841-0000

불황형 스킨숍 창업



**이상현의
 실패하지 않는 창업전략**

며칠전 SBS 모닝와이드 촬영을 했다. 불황형 창업의 일종으로 최근 많은 형태의 창업이 시도되고 있다.

스킨숍(shop in shop) 창업은 크게 두 가지의 목적성으로 창업한다. 첫번째는 경상비의 절감을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하지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두번째는 이종간(서로 다른 업태나 업종)아이템이나 동종(같은 업종이나 업태)간 복합화를 통한 시너지로 목적으로 창업을 실천한다. 그 목적성은 구매효율성을 통한 수익의 극대화가 목적인 것이다.

전체 창업 시 가장 많은 자금집행은 점포에 관련된 금액이다. 특히나 소위 목이 좋은 우수한 입지는 그 금액이 전체 창업

비용의 70% 이상인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창업환경에서 스킨숍 창업은 효율성을 떠나 경제적 창업가치를 실현할수 있는 최소의 조건일 수 있다.

대표적 복합화하는 창업 아이템들을 알아보자. 커피와 베이커리, 카페와 과일 가게, 커피와 꽃집, 핸드폰전문점과 카페, 스낵가게전문점과 호프, 한정식전문점과 반찬가게, PC방과 커피전문점, 피부관리숍과 네일아트, 미용실과 속눈썹 등 다양한 아이템들이 복합화를 통한 한 가게 두세업종들을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장점만 생각하고 시너지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창업은 오히려 두업종 모두에게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먼저 계약기간과 업종구분, 운영사항, 고객관리기준등을 계약서상 명문화해야 한다. 기존공간에 새로운 아이템에 맞는 시설과 동선을 재 투자에 대한 상호 약속

과 규범은 반드시 필요하다. 기대한 상승 효과를 위한 업주의 노력과 함께 공동의 이익으로 결과를 도출해야만 장기간의 협업관계를 이룰수 있다. 그러한 내용을 항목별로 문서화하여 공증을 통한 약속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함으로써 실천에 대한 확약이 필요하다. 또한 인허가사항에 대한 기준이나 법률적 사항을 고려해야한다. 외식업과의 협업인 경우 건물내 정화조용량의 확인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추가할 수 있고, 서비스업의 경우 학교정화구역내 창업이 어려운 업종인지등 관련업종별 공부서류의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창업은 고객과의 눈높이를 맞추는 작업이다. 고객의 소비욕구를 해결해주는 운영방법을 가성비 극대화를 통해 만족의 극대화로 표현되어야 수익성면에서 만족한 결과를 이룰수 있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컨설팅학 박사)

포스코건설, 방글라데시서 '한의약 의료 봉사활동'

마타바리 석탄화력발전소 현장 인근 현지 주민에 침술·부황 등 진료활동

포스코건설은 방글라데시 치타공(Chittagong)주에 위치한 섬 마타바리(Matarbari)에서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포스코건설이 방글라데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마타바리 석탄화력발전소 현장 인근에서 진행됐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4일부터 3일간 방글라데시 마타바리에 있는 푸란 바자(Puran Bazar) 초등학교에서 대한한방해외 의료봉사단과 함께 한의약 의료 봉사활동을 했다.

포스코건설 의료봉사단은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침술, 부황 등의 진료활동과 함께 의약품을 지원했고, 진료를 받기 위해 2800여명의 주민이 몰렸다.

마타바리 석탄화력발전소 현장에 근무하는 포스코건설 직원들은 의료봉사에



포스코건설은 지난 4일부터 3일간 방글라데시 마타바리에 있는 푸란 바자(Puran Bazar) 초등학교에서 대한한방해외 의료봉사단과 함께 한의약 의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사진은 의료봉사단이 진료를 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앞서 지난달 25일 현장 인근 11개 학교에 노트북, 빔 프로젝트, 스크린 등 IT 교육 기자재를 기증하고 설치하는 봉사활동을 시행했다.

자미르 이슬람(Zamirul islam) 콕스 바자르 장학관은 "포스코건설의 정성이 담긴 IT 교육기자재는 이 지역 학생들의

IT 지식기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대한한방해외 의료봉사단과 협력해 한의학 서비스가 필요한 다른 해외 지역에서도 의료봉사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채신희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현대백화점면세점, 강남 명소 알리기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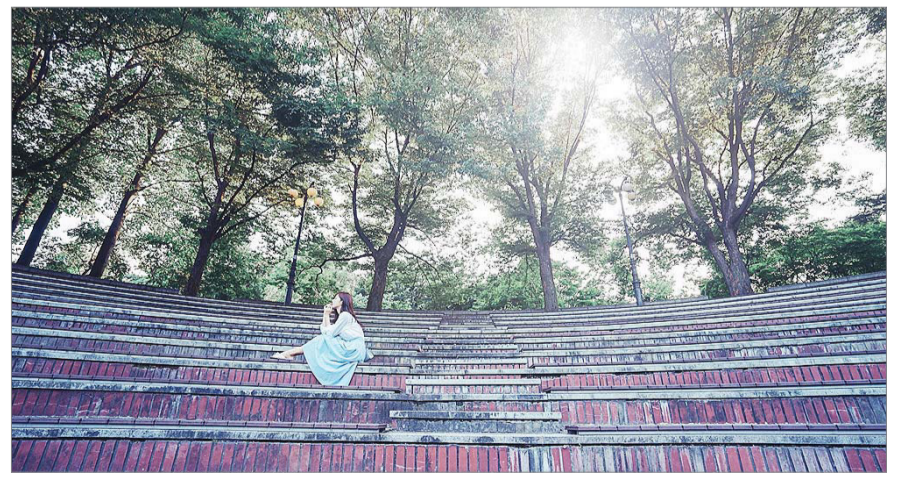
인플루언서 경식스필름과 손잡고 '금손남친 포토스팟' 캠페인 진행 선정릉·도산공원·가로수길 등 소개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여행 분야 유명 인플루언서 '경식스필름(Kyung 6Film)'과 손잡고 서울 강남의 관광명소를 알리는 '금손남친 포토스팟'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식스필름'은 연인과 함께 여행하며 찍은 영상들이 SNS에서 큰 주목을 받으면서 '금손남친(손재주가 좋은 남자친구를 일컫는 말)'이란 애칭으로 불리고 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채널에서 사진과 영상을 통해 선정릉, 아시아공원 등 서울 강남의 관광명소를 알린다는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워커히 등 중국 SNS 채널에서도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소개되는 강남의 관광명소는 총



금손남친 포토스팟 아시아선수촌공원

/현대백화점면세점

10곳으로, 서울 강남 유일의 왕릉 유적지인 '선정릉'과 넓은 녹지 공간을 갖춘 '아시아공원'을 비롯해 '도산공원', '가로수길' 등이다. 특히,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발굴한 관광명소는 '카카오맵'에도 등록돼 고객이 쉽게 검색해 찾아올 수 있게 했다.

한편,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이번 '금손남친 포토스팟' 캠페인과 관련해 내·외국

인을 대상으로 SNS 이벤트도 11월 말까지 진행한다. 금손남친 포토스팟을 찾은 인증샷을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에 게시 태그, 해시태그(#금손남친포토스팟10)와 함께 업로드하면 자동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1명의 고객에게 3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을 증정한다.

/신원성기자 tree6834@

봄에만 잘 팔려? 미세먼지 상품 연중 '스테디 셀러'로

공기청정기·기능성마스크 급부상 의류관리기 판매 신장률 가장 높아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관련 상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공장매연과 자동차 배기가스, 대기 중의 먼지 알갱이 등 대기오염물질 범벅인 미세먼지가 시민들의 호흡기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시민들은 외출시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가 하면, 외출 후 돌아와서 실내에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는 등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2월 관련업체에 따르면 최근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관련 상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특히 공기청정기의 경우 내부 센서가 오염물질을 자동으로 감지해 초미세먼지를 99.95% 잡아내고, 실내 공간 전체에 깨끗한 공기를 고르게 분사하는 프리미엄급 기능을 갖춘 제품들이 급부상하는 추세다.

대형마트나 편의점, TV홈쇼핑 등 유통업체는 미세먼지 관련제품 수요가 늘어



고객이 GS25에서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GS25

남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10일부터 마스크, 의류건조기, 공기청정기 등 물량을 긴급 확보해 편성을 확대했다.

롯데홈쇼핑이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미세먼지 관련 상품 매출(주문금액 기준)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

해 20% 이상 증가했다. 이달 들어 관련 상품 편성을 420분 추가했으며,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글로벌 가전 브랜드 상품을 연이어 선보였다. 10일에는 '최유라쇼'를 통해 독일 유명 가전 브랜드 '블룸베르크'의 의류건조기를 단독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TV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의류건조기 중 유일하게 영국 알레르기협회(BAF)로부터 인증을 받은 상품이다. 10kg의 대용량으로 두꺼운 겨울 이불 등 침구류 건조가 용이하며, 스팀을 활용해 구김을 방지하고 탈취도 가능한 의류관리 기능까지 갖췄다.

이어 11일에는 다이슨 공기청정기와 필수 용품인 황사 마스크를 판매했다.

롯데홈쇼핑은 향후 미세먼지 발생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관련 상품을 다양하게 편성할 방침이다.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G마켓에 따르면 미세먼지 관련 품목 판매량 신장률은 최근 한달(10월 12일~11월 11일)간 전년 동기대비 큰 폭으로 늘어났다. 특히 의류관리기가 414%로 신장률이 가장 높았다.

편의점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으로 기능성마스크가 이름을 올렸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짙어진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마스크 매출을 확인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6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한용은 매출 변동이 없는 반면 기능성마스크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미세먼지가 계절에 상관없이 발생하면서 기능성마스크가 인기 상품으로 자리잡은 것.

실제로 GS25가 연도별 10월~11월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능성 마스크 매출 비중이 2014년 47%에서 올해(10월 1일~11월 6일) 81%로 3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한 겨울인 12월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2014년 12월 기능성 마스크 매출 비중이 37% 였다가 2017년 12월 59%로 22%포인트 늘어났다.

마스크는 크게 미세먼지 등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성마스크와 추위를 막는 방한마스크로 나뉘지는데, 2014년 이전에는 추위를 피하기 위한 방한마스크를 찾

는 고객이 많았던 반면 갈수록 미세먼지 차단과 방한기능까지 겸할 수 있는 기능성마스크를 찾는 고객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년 전체 마스크 매출 중 기능성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4년 38%에서 올해(1월~11월 6일) 77%로 39% 포인트 늘어났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 이슈가 급증하면서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는 물론이고 의류관리기, 건조기, 손소독제 등 관련 품목의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기능성마스크의 경우 계절에 상관없이 찾는 고객이 많다. 대용량으로 구비해 사용하는 고객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위닉스 제로 2.0 공기청정기 /G마켓



이마트, 장당 277원 최저가 마스크팩 선택

'블랙이오' 프렌비타 마스크팩 판매 부담없는 가격에 홈케어 즐길 수 있어

이마트가 개점 25주년 '블랙이오' 행사를 기념해 '프렌비타 스킨 필터링 마스크 시트(90장)'를 말도 안되는 가격에 선보인다. 팩 1장당 277원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마스크팩 중 최저가격 수준이다.

'프렌비타 스킨 필터링 마스크 시트'는 개당 2000원(공식 홈페이지 기준)에 판매되는 상품으로 이마트는 사전기획을 통한 대량 매입으로 가격을 1/10 수준으로 낮췄다.

이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팩 중 가장 저렴한 날개 팩과 비교해도 90매 기준으로 4배 가까이 저렴한 가격이다. 피부에 직접 닿는 상품인 만큼 단순히 가격뿐만 아니라 상품 품질에도 신경 썼다.

프렌비타 마스크팩은 마스크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원단에 대해 독자적인 가공 기술을 적용해 피부에 오래 닿아도 안전하고 에센스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시트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로, 중국, 러시아, 미국, 브라질 등 전세계 12개국에 마스크팩을 수출하며 연간 3백만장 이상 판매고를 올리는 등 해외에서도 K-뷰티 상품으로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는 국내 우수 중소기업이다.

이마트가 마스크팩을 기획해 선보이게 된 배경은 1일 1팩이 남녀 구분 없이 대중적인 피부관리법으로 자리 잡으면서, 부



블랙이오 마스크팩을 구매하는 모습. /이마트

담 없는 가격에 소비자들이 홈케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최근 홈케어가 각광 받으면서 다양한 상품이 함께 인기를 끌고 있다. SNS 등을 통해 '1일 1팩', '셀프 스킨케어 루틴' 등 자신만의 피부관리 방법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갈바니 마사지', 'LED마스크' 등 뷰티 디바이스(bauty device), 아이(eye)마스크나 '브이라인 밴드', 다리 마사지 팩 등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홈케어가 인기를 끌자 이마트는 작년부터 홈 셀프케어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 마스크팩, 갈바니·음이온 마사지기 등 관련 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마스크팩은 운영 상품 수를 16년 2종 수준에서 현재 150여종으로 대폭 늘렸다.

올해 이마트의 '홈셀프케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10.7%, 마스크팩은 26.7%



로 매출이 증가했다.

이석규 이마트 바디케어 바이어는 "홈 셀프케어의 인기에 발맞춰 가장 손쉬운 셀프케어 제품인 마스크팩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도록 이번 상품을 기획하게 됐다"며, "향후 더 많은 소비자가 셀프케어를 즐길 수 있도록 가성비 뛰어난 상품을 추가로 선보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CU, 찰쌀떡 품은 모찌볼로 수능 대박 기원

편의점 CU가 수험생들의 대박을 기원하는 이벤트를 펼친다.

CU는 2019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인 15일까지 '예감적중 할인 쿠폰(5000장 한정) 증정' 이벤트를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 동안 전국 CU(씨유)에서 '예감적중 할인 쿠폰'을 제시하면 '모찌볼' 2종(티라미수, 그린티)/각 3000원'을 1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해당 쿠폰은 CU의 모바일 멤버십 앱인 '포켓CU'의 'CU 추천' 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다.

CU는 이벤트 기간 동안 해당 상품 패키지에 모찌볼의 단면을 형상화한 과녁 모양 스티커를 부착해 정답을 잘 맞추라는 응원의 마음을 전달한다.

수능이 끝난 15일부터 19일까지는 삼각김밥 카테고리의 베스트셀러인 '참치



마요삼각김밥'의 패키지를 '수능 끝! 노는건 참치 마요'로 변경하는 깜짝 이벤트도 펼친다. 최근 10대를 중심으로 '참치마요'와 비슷한 '참치마요'를 활용한 문구들이 SNS에서 유행하는데 맞춰 삼각김밥에 격려의 메시지와 재미를 담은 것이다. /김민서 기자 min0812@

롯데홈쇼핑 '서프라이즈 100억 페스타'

내달까지 적립금·추가 할인 혜택

롯데홈쇼핑은 내달 31일까지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적립금,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역대 최대 쇼핑 이벤트 '서프라이즈 100억 페스타'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연말을 맞아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소비심리가 살아나는 연말 특수를 선점하기 위한 대규모 행사로, 100억 원 상당의 혜택이 고객에게 제공된다. 모바일 앱을 통한 상품 구매 시에 적용돼 모바일 채널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총 두 달 동안(11월1일~12월31일) ▲매일 2만 명 고객 대상 5000원 추가 할인 쿠폰 제공 ▲최대 20% 적립금 제공 ▲엘포인트(L.POINT) 적립 등의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 할인 쿠폰의 경우 매일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해당 기간 중에 12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신원선 기자



아울러 17일 오전 8시 20분부터 '최유라쇼'를 비롯해 '이승연 쇼', '더 레드', '패피 더 라이브', '나쁜 여자쇼' 등 롯데홈쇼핑 대표 프로그램을 총망라한 '올스타(All Star) 특별전'을 진행한다.

방송 중 모바일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000 명에게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 '케니 샤프'의 패딩백을 경품으로 증정한다. 당일 하루 동안 '아니베에프 구스다운', '나인식스 뉴욕 팬츠', '에피큐리언 도마' 등 인기 패션 브랜드부터 프리미엄 주방용품까지 대거 판매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올리브영, 스마트 툴 브랜드 '필리밀리' 론칭

올리브영이 수년간의 판매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뷰티소품 전문 브랜드를 선보이며 셀프 뷰티 시장 확대에 나선다.

H&B(헬스앤뷰티) 스토어 올리브영은 보다 쉽게 전문적인 메이크업을 도와주는 스마트 툴(Smart Tool) 전문 브랜드 '필리밀리(FILLIMILLI)'를 론칭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7년부터 '올리브영' 동명의 자체 브랜드를 통해 판매해온 뷰티소품을 리뉴얼한 것으로, 10여년 만에 진행된 대대적인 기능·패키지 개편이다.

올리브영은 기존의 뷰티소품 브랜드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고객의 다양한 니즈와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는 '스마트 툴' 브랜드로 업계 전문성 및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포부다.

실제로 올리브영이 최근 3년간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뷰티소품 카테고리는

매년 약 30%의 신장률을 기록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는 뷰티 유통부 등을 통해 다양한 화장법을 배운 '셀프 뷰티족'들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필리밀리'는 매일 만나는 뷰티 메이트(mate)라는 콘셉트로, 바쁜 일상에 시간과 노력을 덜어 주면서 보다 전문적인 뷰티 노하우를 제안하는 스마트 툴 전문 브랜드다. '필리밀리'의 이름은 영문 'Fill & Feel Millions Of Your Beauty'를 축약한 것으로, 수많은 아름다움을 채우고(Fill) 느낀다(Feel)는 의미를 담았다.

'필리밀리'는 새롭게 개발한 뷰티소품 60여개와 기존 100여개의 상품을 리뉴얼해 총 160여개의 제품으로 구성됐다. 상품별로 1000원대부터 1만9000원대까지 합리적인 가격도 강점이다. /김민서 기자



LG화학, 美 큐 바이오파마와 맞손

차세대 ‘면역항암제’ 새시대 연다



후보물질 신약 3개과제 공동개발
아시아·非아시아 지역나눠 진행
LG화학, 아시아 지역 권리 독점

LG화학이 차세대 항암제인 면역항암제 개발에 뛰어 들었다.

LG화학은 미국 보스턴 ‘큐 바이오파마(CUE Biopharma)’의 전임상, 후보물질발굴 단계의 면역항암제 신약 과제 3개를 공동개발 한다고 12일 밝혔다. 면역항암제는 체내 면역체계를 자극해, 활성화 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항암제를 말한다.

큐 바이오파마는 면역치료 분야 신약 개발을 위한 혁신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암, 자가면역 및 만성감염질환 치료제 개발에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미국 나스닥 상장회사다.

이번 파트너십에 따라 큐 바이오파마는 아시아권(LG화학)과 비 아시아권(큐

바이오파마)으로 지역을 나눠 공동개발 및 상업화를 진행하고, LG화학은 아시아 지역 권리를 독점으로 확보한다.

LG화학은 지분투자, 계약금, 개발 및 상업화 성취도에 따른 단계별 마일스톤 등 최대 약 4억 달러를 큐 바이오파마에 지급하며, 상업화 이후에는 아시아지역 매출에 따른 단계별 로열티도 지급하기로 했다. 또 LG화학은 이번 계약 후 2년 내 전세계 상업화 권리를 바탕으로한 파트너사의 신약 과제 1개를 추가로 도입할 수 있는 옵션(약 5억달러 규모) 권한도 확보했다.

이번 파트너십은 큐 바이오파마의 혁신 기술과 LG화학의 신약개발 역량이 합쳐지면 글로벌 항암 시장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전략적으로 이뤄졌다.

큐 바이오파마는 현재 혁신적인 신약 개발 플랫폼(Immuno-STAT)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플랫폼 기술은 면역세포인 T세포를 선택적으로 조절하도록 설계된 혁신 바이오신약 기술이다.

면역체계가 암세포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특정 암세포 조각인 항원의 정보를

면역세포인 T세포에 전달해 T세포가 해당 암세포를 인지하고 공격하게 만들어야 한다. 큐 바이오파마가 가진 기술은 환자의 T세포를 체외로 추출해 면역력을 활성화 시킨 후 체내에 재주입하는, 기존 T세포 치료법과는 차별성을 가진다.

LG화학은 바이오의약품, 합성신약, 백신 등 폭넓은 의약품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제조공정·품질관리(CMC) 연구를 주도로 진행하고, 이에 대한 성과(임상시료 개발, 상업화 생산 등) 수준에 따라 파트너사로부터 로열티를 지급 받게 된다.

송지웅 생명과학사업본부장은 “큐 바이오파마의 혁신적인 선택적 T세포 조절 기술과 LG화학의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생산 역량이 합쳐진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암환자들을 위한 혁신적인 치료제 개발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댄 파세리(Dan Passeri) 큐 바이오파마 대표 겸 CEO는 “LG화학의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 분야 임상개발 역량은 큐 바이오파마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광동제약 임직원과 가족들이 지난 10일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을 찾아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광동제약, 취약가정에 연탄 1400장 전달

광동제약은 임직원과 가족 등 60여 명이 지난 10일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을 찾아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광동제약은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백사마을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등 난방취약 가정에 연탄 1400여 장을 전달했다. 백사마을은 가파른 산자락 아래 위치 한데다 길이 좁아 집 앞까지 차량이나 손

수레의 접근이 어려운 곳이 많다. 또 고령 등으로 인해 겨울철 난방에 필수인 연탄을 직접 준비할 수 없는 소외 이웃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

올해 광동제약 임직원은 백사마을 중에서도 고지대에 위치해 접근성이 취약한 가정들을 주로 찾았다. 이들은 지계에 연탄을 싣고 좁고 가파른 골목길을 오르내리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세경 기자

혈압 등 4개 요소 변동면 치매발병 1.2배 ↑

여의도성모병원, 294만명 조사

혈압, 포도당, 콜레스테롤, 몸무게 등 4가지 요소 중 한가지의 변동성이 큰 경우 치매 발병 위험이 1.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김미경 교수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코호트에 등록된 성인 293만816명을 대상으로 생물학적 매개변수의 변동성이 치매 발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알츠하이머 연구 및 치료’(Alzheimer’s Research & Therap

y) 최근호에 게재됐다.

연구 참여자는 2005~2012년 3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았고, 연구 시작 시점에서 치매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의 병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연구팀은 조사 참여자의 치매 발생 여부를 2015년까지 추적 조사했다.

이 결과 약 5.5년의 조사 기간에 1.12%(3만2901명)에서 치매가 발생했다. 이 중 74.4%는 알츠하이머 치매였으며, 11%는 혈관성 치매였다.

주목되는 건 연구팀이 관찰한 4가지 요인의 변동성이 클수록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았다는 점이다. /이세경 기자

한식 아이템 변화... “불황속 안정 잡아라”

- 본도시락
- 해물·닭 등 찜도시락 3종 출시
- 고기한끼
- 삼겹살 한근+반찬 ‘2만원대’ 저렴
- 풀잎채
- 전복 메인 ‘고복식당’ 퓨전 한식



연안식당의 꼬막비빔밥 /디딤



찜도시락 /본아이에프

한식이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식은 한국인이 가장 즐겨찾는 음식이다. 식재료에 따라 전문화할 수 있는 영역이 넓으며, 발전 가능성도 많아 꾸준한 유망 창업 아이템으로 손꼽히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한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만 약 1600개에 달한다. 이미 포화상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유행을 타지 않고, 고객도 꾸준해 안정적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에게는 여전히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이같은 한식 브랜드들도 소비자의 니즈가 다양해지면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가성비, 가심비 반영은 물론 창업자를 위한 운영의 효율성까지 높인 게 특징이다.

프리미엄 한식도시락을 표방하면서 집밥에 대한 향수를 충족시켜주고 있는 브랜드는 본도시락이다. 제철 채소와 나물 등 한국인의 몸에 가장 잘 맞는 자연

의 먹거리가 더해지면서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에 치저 있는 현대인들에게 건강 한끼를 제공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본도시락은 또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 서 따뜻한 한식 요리인 찜을 그리워하는 고객을 위해 해물찜과 닭찜을 도시락으로 구현한 찜도시락 3종을 선보였다. 도시락 창업시장에서 발빠른 메뉴개발도 창업자에게는 장점이다.

삼겹살 곱빼기 배달전문 프랜차이즈 고기한끼는 불맛과 육즙이 살아있는 최고 품질의 삼겹살을 넉넉히 주는 양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브랜드다. 삼겹살 600g이 넘는 양에 야채와 반찬을 곁들여도 2만원대로 저렴하다.

풀잎채가 운영하는 고복식당은 전복을 메인 식재료로 한 퓨전 한식 전문점이다. 매장에서 직접 뽑아 쫄깃한 면발에 프리미엄 보양식 전복죽까지 제

공하는 ‘수제 냉면’이 시그니처 메뉴다. 그래서 ‘전복죽 주는 냉면집’으로도 알려져 있다.

디딤이 운영하는 연안식당은 꼬막비빔밥 전문점이다. 최근 론칭 1년여 만에 100호점 계약을 완료했다. 연안식당은 꼬막비빔밥 외에 밴댕이회 비빔밥, 멧개비빔밥, 회무침, 해물탕 등 신선한 해산물을 바탕으로 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는 브랜드다. 여수, 벌교꼬막과 영양이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고, 식사와 술자리에 어울리는 다양한 해산물 메뉴를 보유하고 있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전복내장죽과 물냉면 /풀잎채

휴온스글로벌, 3분기 연결매출 1천억 돌파

전년비 16.8% ↑ ... 당기순익 214억

휴온스글로벌이 처음으로 3분기 연결매출 1000억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

휴온스글로벌은 올해 3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전년 대비 16.8% 오른 1003억원을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09억

원, 214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42.8% 각각 올랐다.

휴온스글로벌의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은 주요 자회사인 ‘휴온스’가 국내·외 제약 사업에서 안정적인 성장으로 실적 상승을 주도한 덕이다. 휴온스는 올해 3분기에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전년 대비 15.8% 오른 863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영업이익 134억원, 당기순이익 132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7.2%, 41.5% 올랐다.

‘휴메딕스’도 에스테틱 사업 매출이 증가하며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용기 사업을 전개하는 ‘휴메나’와 소독제 사업을 영위하는 ‘휴온스메디케어’ 등 자회사들도 동반 성장하며 실적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휴온스글로벌은 자회사들의 사업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주력 품목인 보툴리눔 독소 ‘휴톡스주’의 ‘미간주름 개선’에 대한 국내 임상 3상 시험도 성공적으로 종료하는 등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 /이세경 기자

동원F&B

‘뽀로로 참치’ 출시

동원참치와 애니메이션 캐릭터 뽀로로가 만났다.

동원F&B는 어린이 맞춤형 참치캔, ‘동원 뽀로로 참치(사진)’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뽀로로는 지난 2013년부터 방영된 국산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의 주인공 캐릭터로, 영유아 자녀들과 부모들 사이에서 ‘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가 많다. 최근에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인기 캐릭터로 자리잡고 있다. 뽀로로 애니메이션은 국내 애니메이션 사상 최대 기록인 세계 130여개국에 판매됐다. ‘동원 뽀로로 참치’는 아이들의 성장과 두뇌발달을 위해 어린이 맞춤형으로 개발된 참치캔이다. 참치캔은 지난 2014년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어린이들의 성장 발달을 위해 꾸준한 섭취를 권장하는 건강권고안을 발표할 정도로 영양이 풍부한 식품이다. /박인용 기자



한미약품 금연캠페인

한미약품, 금연캠페인 확대 운영

금연치료제 ‘노코틴’ 출시 기념

한미약품그룹은 금연치료제 노코틴 출시를 기념해 2015년부터 진행해 온 사내 금연캠페인을 전사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한미약품이 이달 출시하는 이달 출시되는 노코틴은 바레니클린 성분 중 유일하게 옥살산염으로 허가받은 금연치료제로, 한미약품 제제기술로 단독 개발한 전문의약품이다.

그동안 한미약품은 사내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임직원에게 장려금 또는 축하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캠페인을 진행해 왔으나, 이달부터는 장려금(사내 복지포인트) 지급과 함께 금연 성공자인

원수만큼 후원기금(회사 부담)을 조성해 취약계층에 이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한미약품은 이번 노코틴 발매에 따라 정부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쓰이는 금연치료제(전문의원약품) 2종 모두를 보유한 제약회사가 됐다. 나머지는 FDA 승인을 받은 부프로피온염산염 성분의 금연치료제 ‘니코피온서방정’이다. /이세경 기자

LG배 여자야구대회 폐막... '나인빅스' 우승

39개 팀 참가... 국내 가장 큰 규모

'2018 LG배 한국여자야구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LG전자는 지난달 20일 개막한 여자야구대회가 11일 폐막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여자야구대회는 LG전자가 2012년부터 한국 여자야구 저변 확대를 위해 열고 있는 대회다. 올해로 6회째로, 국내 여자야구대회 중에는 가장 큰 규모다.

올해 대회에는 39개 팀에서 선수 830명이 참가했다. 결승전은 챔피언스에서 '나인빅스'가 '블랙펄스'를 11대5로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다. 퓨처리그에서는 '헤머스톰'이 '뿔다발'을 14대10으로 눌렀다.

우승팀은 도자기로 만든 트로피와 상금을 받았다. MVP와 포지션별 우수선수에는 'LG 프라엘'과 'LG 퓨리케어 공기정정기' 등이 주어졌다.



2018 LG배 한국여자야구대회가 성황리에 폐막했다.

/LG전자

손예림 나인빅스 감독은 "여자야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준 LG전자와 한국여자야구연맹에 감사한다"며 "여자 야구선수들이 더 많은 경기에서 땀 흘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충학 LG전자 지원부부장 부사장은 "대회기간 동안 선수들이 보여준 뜨거운 열정에 감동받았다"며 "한국 여자야구가 더 높이고 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사립유치원의 집단 움직임



기지 수첩

한 용 수
(정책사회부)

사립유치원들의 사실상의 집단 반발 움직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내 사립유치원 최대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지난달 30일 유치원장과 설립자 등 4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비공개로 개최한 대토론회 직후, 사립유치원 원장 대다수가 폐업을 하고 싶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밝히면서 도 각 유치원 원장들이 스스로 판단할 것이라면서 집단 대응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를 끌어온 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지난 6일을 기준으로 전국 38개 사립유치원이 폐원 신청서를 냈거나 학부모들에게 폐원 안내를 했고, 1곳은 원아 모집 중단을 안내했다. 특히 내년 원아 모집을 위한 일정을 미루거나 학부모들에게 알려 주지 않는 유치원들은 이보다 더 많다. 휴업이나 폐원을 신청했거나, 원아 모집 일정을 보류하거나 정하지 않은 유치원들의 행태를 보면 집단 움직임과 다름없다.

올해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발표가 없었더라면 대부분의 유치원들은 이미 내년 원아 설명회나 모집 일정을 학부모들에게 공지했어

야 했다. 정부 당국이 임의 휴·폐업 유치원에 대해 경찰 고발 등의 강경 조치를 공언하자 이를 피해 가려는 꼼수에 불과한 이유다.

박용진 의원 등 129명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3법'에 대한 사립유치원 설립자나 원장들의 태도는 학부모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든다. 일부 유치원장들은 교사들에게 정부 입법에 고시시스템에 반대글을 써주며 댓금을 달라고 한 제보도 나오고 있다.

자신들의 재산권에만 집착하면서 정부 지원금을 빼돌려 명품백을 사거나 보험료와 수리비까지 냈던 비리유치원에 정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에 반기를 든 것은 선량한 사립유치원을 더욱 힘들게 만들 뿐이다.

정부의 유치원 입학지원 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지난해 대비 10배 이상의 사립유치원이 등록한 걸 보면 적지 않은 사립유치원이 비리요명을 벗길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12일 교육부는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처음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사립유치원 휴·폐업뿐 아니라 모집 일정 등의 현황도 파악하기로 했다. 정당한 이유없이 모집 일정을 보류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도 임의 휴·폐업에 준하는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

/hys@metroseoul.co.kr

쌍용자동차 임직원·중소 위한 직장어린이집 운영

쌍용자동차가 임직원과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공동 직장어린이집 '자람어린이집'을 운영한다.

12일 쌍용차에 따르면 자람어린이집은 대지면적 1499㎡(약 455평),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만 1~5세 유아 99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내·외부 인테리어에 모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보육실 외에도 도담돌(도서관), 놀이터, 산책로 등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보육 공간들로 구성했다. 전국 100여 곳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한솔어린이보육재단이 위탁 운영을 맡아 양질의 체계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쌍용차는 공동 직장어린이집 컨소시엄에 참여한 쌍용송탄정비센터, 아성화학, 테스나 등 칠곡·송탄산업단지 내 20개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부지를 무상 제공한 것



최종식 쌍용차 대표이사가 지난 9일 개원한 '자람어린이집'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쌍용자동차

은 물론 근로복지공단 건립지원금을 제외한 건설비 전액을 부담했다.

/양성운 기자 ysw@

오늘의 운세

11월 13일 (음 10월 6일)

http://www.saju4000.com

- 쥐** 48년생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니 즐겁게. 60년생 불행은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더 커진다. 72년생 많은 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을 쳐라. 84년생 사방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뤄뒀던 일을 마무리.
- 소** 49년생 남의 것을 욕심내면 내 것이 2배로 나간다. 61년생 물건을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73년생 비가 든 구름을 걸어서 아찌 알겠는가? 85년생 확실한 거절이 오히려 관계를 좋게 한다.
- 호랑이** 50년생 낙숫물에 바위가 돌리는 법이니 꾸준히 노력. 62년생 가는 사람도 잡아야 할 때가 있는 법이다. 74년생 도움을 줬던 사람이 은혜 갚아 온다. 86년생 얼룩진 옷은 벗어서 빨아야 얼룩을 없앨 수 있다.
- 토끼** 51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려 하지 말고 내 잘못도 생각. 63년생 비상금을 이용해서 난국을 타개. 75년생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으니 더 분발해야 한다. 87년생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 말** 52년생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마라. 64년생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듯 하나 의외의 복병을 조심하자. 76년생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88년생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으니 부단한 노력이 필요.
- 뱀** 53년생 거울은 결코 혼자서는 웃지 않는다. 65년생 힘들고 고단한 하루를 보내면 큰 보답이 온다. 77년생 농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 89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는 길도 물어서 가라.

- 말** 54년생 상대를 배려해야 나도 존중받는다. 66년생 마음은 별이라도 딸 것 같으나 오늘은 자중해야 한다. 78년생 길 떠나게 되면 상비약을 꼭 챙겨라. 90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시간 낭비일 것.
- 양** 55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다. 67년생 한발 앞서려다 두 걸음 뒤처지게 되니 주의하라. 79년생 역마의 운이 있으니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 91년생 날씨 탓만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
- 원숭이** 56년생 검은색 옷 입을 일이 생긴다. 68년생 초대받은 손님으로 환영을 받으니 기쁨이 넘치는 하루. 80년생 벌을 두려워하면 꿀을 얻을 수 있다. 92년생 무더위가 가면 그늘 덕은 있는 법이니 마음을 비워라.
- 닭** 57년생 금전 문제 아니면 만남에 속상할 일이 생긴다. 69년생 가까운 사이일 수록 예의를 갖춰야 한다. 81년생 구슬수가 있으니 새로운 만남을 주의. 93년생 부모님의 건강과 안부를 챙기면 좋은 일이 있다.
- 개** 58년생 망해버린 나라의 옥새를 끌어안고 있는 형국. 70년생 남의 부러움을 사는 날이나 실속은 없다. 82년생 좋은 결과는 올바른 선택에서 비롯된다. 94년생 구정물에 발을 담그면 발은 더러워지기 마련.
- 돼지** 59년생 머리가 맑고 기분이 상쾌한 하루. 71년생 김치국부터 마시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83년생 우물을 찾았으니 두레박은 만들어서 쓰면 된다. 95년생 기회가 주어지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3	9	2		
	4					1	
3			2	4			8
8	3			5			1
4			1	7	3		6
	9				4		2
1		4	7	6			5
	6					4	
	2	8	9	1	6		

		5		8		2	
	3			9			4
1			4	5	6		7
		2				1	
9	7	1		3		4	2
		4				5	
2			5	4	3		8
	5			7			6
	8		2			3	

스도쿠 정답								
2	9	6	1	8	3	5	7	4
6	7	1	5	2	8	9	4	3
5	2	8	9	4	7	6	1	3
7	4	5	8	9	6	1	3	2
9	8	3	2	1	6	5	7	4
1	6	5	2	7	4	8	9	3
8	5	4	7	3	1	9	6	2
3	1	6	8	9	4	7	2	5
4	9	7	6	5	1	3	8	2

문제 제공= 보노스



김상회의四季

신성(神性)

믿음은 합리적인 이성이 함께 할 때 빛을 받는다. 바른 견해와 사유 없이 종교에 맹신하게 되면 웃지 못할 미신적인 행태가 건드리지 못할 종교적 전통으로 자리 잡기도 한다. 종교의 순기능은 삶의 과정에 일어나는 어려움을 이겨나갈 저력을 줄 뿐만 아니라 보다 도덕적인 삶으로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을 다루는 정신적 수행도 수반하기에 종종 기적으로 보이는 체험을 하거나 신통스러운 현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런 경험이나 기대는 종교의 신비성 또는 신통력을 빙자한 사이비종교의 발생이나 횡행을 가져오기도 한다. 특히 사회가 안정되지 않고 혼란한 시기에는 더욱 그러하여서 종교를 빙자한 사탄 신앙단체는 흑세무민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네팔의 살아있는 여신이라는 '쿠마리' 제도에 대해 언젠가 신문의 해외포퓰러에서 화려한 장식과 눈가의 검은 화장 붉은 입술로 화장을 한 어린 여자아이가 처연한 눈빛으로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쿠마리는 힌두교의 고대 여신 '탈레주'의 화신으로 알려져 있다. 어린 소녀를 쿠마리로 간택하여 사원에 거주케 하여 숭배하기 시작한 것은 1918년부터라고 한다. 4살이나 5살부터 가족과 떨어져서 생활하면서 공식적인 여신으로의 임무를 해내야 한다. 그러나 나라의 수호신이라고 온갖 추앙을 받다가 조영이 시작되면 신성성이 사라졌다 하여 오히려 갖은 멸시를 받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해괴한 생각이란 말인가? 쿠마리가 되면 신성한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가마를 타고 다니며 온갖 숭배를 받다가 말다. 네팔인 들은 쿠마리여신이 복과 행운을 가져다주며 따라서 신통력을 가진 존재인 쿠마리가 흠뻑 쳐다보기만 해도 행운이 온다고 믿기에 쿠마리 사원 앞에 모여 자신들에게 시신을 보내주기를 기원한다고 한다. 최근에 네팔의 쿠마리제도가 어린 소녀의 인권을 짓밟는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네팔 대법원은 "살아있는 여신 쿠마리에게도 어린이로서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여실지견(如實知見)할 때 더욱 신성(神性)은 빛나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창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07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182호

美 밀키트 시장 사로잡은 ‘매운맛’... aT, 한식 정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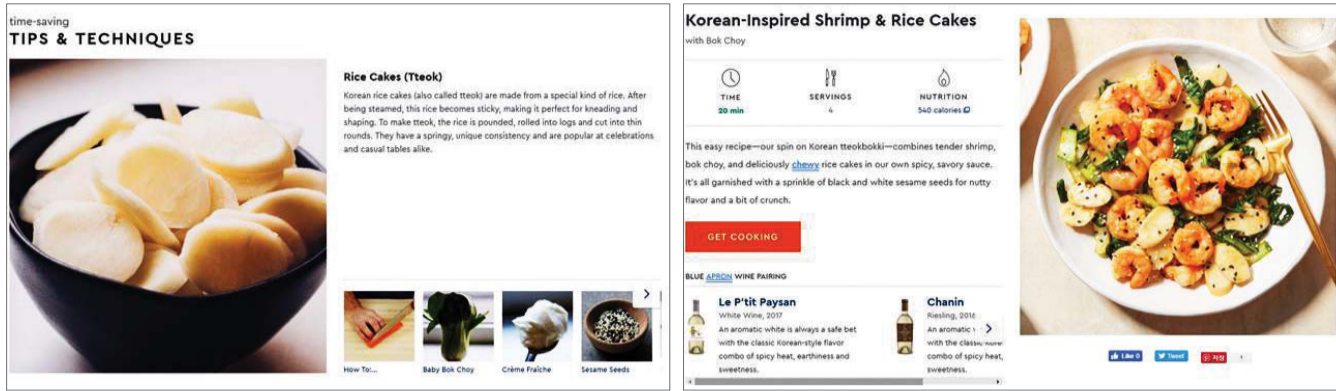
(식사(Meal) + 세트(Kit))

**aT 美 블루에이프런과 연계
고추장·쌀떡 등 퓨전메뉴로
한국식 재료 소비 확산 나서
“간단 조리... 소비 확대될 것”**

최근 미국에서 밀키트(meal kit)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미국 밀키트 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제품 출시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밀키트는 식사(Meal) + 세트(Kit)의 합성어로 쿡킹박스, 레시피 박스라고도 불리며 가정간편식(Home Meal Replacement, HMR)과 조금 다른 개념이다. 밀키트란 손질된 식재료와 믹스된 소스를 이용해 쉽고 빠르게 조리할 수 있는 식사 키트이며, 최근 유명 셰프들의 레시피로 제공되는 Meal-Kit도 출시되고 있다.

특히, 원하는 식단 및 재료분량을 온라인에서 주문하면 가정으로 직접 배달해주



aT가 밀키트 서비스 대표업체인 블루에이프런(Blue Apron)에 공개한 한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 모습. /aT

는 식품·요식업계 DIY형태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다.

12일 aT에 따르면 밀키트 서비스 대표 업체인 블루에이프런(Blue Apron)과 연계해 11월부터 12월까지 한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한국메뉴 론칭을 추진한다.

블루에이프런은 2012년에 창립돼 밀키트 서비스를 개척한 스타트업 업체이자, 시장점유율이 30%에 달하며 매달 200만

이상 가구에 식재료를 배달하는 업체다. 이번 한국메뉴 론칭에서는 고추장, 쌀떡을 이용한 퓨전 메뉴를 선보이며 한국식 재료 소비확산에 나선다.

메뉴로는 쌀떡을 이용한 Korean-inspired Shrimp & Rice cakes과 제육볶음 같은 Korean Pork & Rice cakes, 고추장을 이용해 불고기 맛이 나는 Korean Style Beef Bowls와 닭강정을 따라한 Korean

Popcorn chicken을 선보이며, 한끼 4인 기준으로 약 36달러에 판매 될 예정이다.

더욱이 한국식재료의 고유명사화를 통해 현지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Red pepper paste 대신 ‘Gochujang’으로 표기하고, Rice cake은 ‘Tteok’과 함께 표기해 한국산 재료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할 예정이다.

2017년에 이어 올해도 블루에이프런과

연계한 한국식재료 수출확대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작년 론칭 당시 고추장, 쌀떡의 반응이 좋았기 때문이다. 2017년 고추장은 약 100만 가정에 배달돼 30톤이 소비됐으며 쌀떡은 약 20만 가정에 배달돼 11톤이 소비된 바 있다.

미국 최대의 밀키트 서비스 업체에서 미국 일반 가정에 한국 식재료를 지속적으로 소개하는 본 사업은 한국 식재료의 대미 수출확대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현지 소비자들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신현곤 aT 식품수출이사는 “미국에서 고추장은 새로운 핫소스로 부상하고 있어 대미수출도 지속 증가세에 있다”며 “쉽고 간단한 조리방법을 선호하는 미국 주요 소비자층인 밀레니얼 세대들을 겨냥한 이번 사업을 통해 온-오프라인 시장과 더불어 미국주류시장에서의 고추장 소비가 확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표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제주로 모인다

**산업인력공단-세계은행
‘아세안+3 직업능력개발 포럼’**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세계은행이 공동 주관하는 ‘2018 ASEAN+3 직업능력개발 포럼’이 이달 13일과 14일, 양일간 제주 해비치에서 개최된다.

‘디지털 경제와 공동의 미래를 위한 인적자원개발 혁신, 정책, 거버넌스(Governance)’를 주제로 베트남 등 ASEAN 회원국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정책담당자, 국제기구 전문가까지 국내외 직업능력개발 분야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해 강연과 토론회를 진행한다.

포럼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박종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의 ‘디지털 경제 동반 성장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이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HRD 정책 및 협치 혁신 ▲직업능력개발의 혁신 ▲ASEAN+3 공동의 미래 구축 등 3개의 소주제로 세션이 진행된다.

기조강연에서 박 교수는 한국의 직업훈련 사례를 소개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평생학습 ▲신기술 학습 강화 ▲중소기업 훈련 지원 ▲교사와 시설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직업능력개발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인 ‘HRD 정책 및 협치 혁신’에서는 ‘정책’과 ‘거버넌스’를 키워드

로 주제발표와 함께 ‘신(新)성장 모델을 위한 직업능력 정책’, ‘정책적 조화와 촉진을 위한 통합적 계획’을 주제로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패널토론에는 토비 린든(Toby Linden) 월드뱅크(WB : World bank) 국장, 레이 소픽(Rey Sopheak) 캄보디아 교육부 국장, 피시 랑사리우티쿨(Pisit Rang sariwutikul) 태국 전문자격기구(TPQ I : Thailand Professional Qualification Institute)이사장, 필 램버트(Phil Lambert) 시드니대 교수 등 전문가 4명이 신성장 모델을 위한 기술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두 번째 세션인 ‘직업능력개발의 혁신’에서는 ‘직업교육훈련’을 키워드로 주제 발표를, ‘기술과 인적자원의 창의성 강화’와 ‘일의 변화와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루디 살라후딘(Rudy Salahuddin) 인도네시아 경제부 차관은 ‘미래 직업능력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혁신’을 주제로 기술변화가 국가 내 인력개발에 미친 영향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거버넌스 개혁 사례를 소개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ASEAN+3의 신성장 동력을 ‘인적자원개발’에서 찾기 위한 주제발표와 토론회가 이어진다.

김동만 공단 이사장은 “격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적자원개발을 주제로 다양한 협력방안 논의와 정책적 제언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해양환경공단 ‘해양쓰레기 저감’ 도시 캠페인

해양환경공단(KOEM)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 광장에서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해양 쓰레기 저감을 위한 도심캠페인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 슬로건은 ‘내가 만드는 깨끗한 바다’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쓰레기로 액세서리를 만드는 업사이클링 부스 체험, 해양쓰레기 OX 퀴즈,

플로깅 참여 SNS 인증 이벤트, 플래쉬몹 단체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국민 참여를 유도했다.

박승기 공단 이사장은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해안가 및 해변방문 시 발생한 쓰레기를 다시 가져가는 등 생활 속의 실천이 중요하다”며 “이번 도심 캠페인이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K-뷰티·웰니스에 빠진 캐나다 여심

(女心)

**관광공사 ‘케이뷰티 인 캐나다’
20~30대 현지인 1500여 명 참석
미샤·어퓨 등 30개사 판촉행사도**

한국관광공사는 KOTRA, 주 몬트리올 총영사관과 함께 지난 10일(현지시간) 캐나다 퀘벡주 최대 도시인 몬트리올의 하얏트 호텔에서 ‘케이뷰티 인 캐나다(K-Beauty in Canada)’ 행사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캐나다 20~30대 여성층 대상 한국의 뷰티·웰니스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현지인 약 150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행사에서는 북미에서 활동 중인 유명 K-뷰티 블로거 모건 스투워드(Morgan Stewart)가 한국산 화장품을 활용한 자신만의 한류 스타일 메이크업 노하우를 공개했다.

또한 한국의 힐링과 명상, 뷰티와 스파



한국 화장품 둘러보고 있는 캐나다인. /한국관광공사

등을 주제로 한 대표적 뷰티·웰니스 관광자들이 소개됐다. 한국산 화장품 쇼케이스, 뷰티·웰니스 관광콘텐츠 SNS 공유 이벤트, Live DJ Show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됐다.

국내 화장품 중소기업의 신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미샤, 어퓨, 동인비 등 국

내 화장품 업계 30개사가 참가한 특별 판촉행사도 열렸다.

박현관 한국관광공사 토론토지사장은 “한국 뷰티 마니아층의 방한 확대를 위해 맞춤형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서 기자 min0812@

동탄2신도시 ‘주거 단독주택용지’ 첫 공급

LH D22·23블록에 총 78필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 동탄 2신도시 내 첫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D22, 23블록 총 78필지를 공급한다.

12일 LH에 따르면 D22, 23블록은 일반 실수요자에게 최초로 공급하는 단독주택용지로, 파아파트 위주의 획일화된 주거형태에서 벗어난 고급 단독주택지역으로 계획됐다.

이 곳은 동탄 순환대로가 인접하고 근린상가, 왕배초등학교, 청림중학교, 청림초등학교(예정), 정현고등학교(예정), 동탄7동 도서관(가칭)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100m 반경에 위치한다. 또 블록 전체가 왕배산과 녹지에 둘러싸여 있다.

공급금액은 D22블록은 4억7150만~5억4027만원, D23블록은 4억6081만~8억3433만원으로 3.3㎡당 평균 670만원 수준으로 2층 2가구 이하로 건축 가능하다. 다만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건축해 주

차장 등으로 사용하면 용적률 및 층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공급일정은 LH 인터넷 청약센터를 통해 1순위 12월 3일, 2순위 12월 4일 신청 접수, 4일 추첨 및 당첨자 발표 후 12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계약체결 예정이다.

순위별 신청자격은 1순위는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법인신청 불가)이며, 2순위는 일반실수요자(법인신청 가능)다. 1인(법인) 1필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2년 유이자 균등분할납부 조건이다.

동탄2신도시는 인프라가 구축이 완료된 동탄1신도시, 동탄일반산업단지를 포함해 면적 35㎢, 주택 15만호, 인구 41만 명이 달한다. 수도권고속철도(SRT)를 이용하면 수서 15분 이내, 세종시 및 전국 혁신도시 1시간 30분 이내에 도착 가능하다.

/채신화 기자 csh9101@

HUG 한부모가정·독거노인 보증료 할인을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2일부터 한부모가정, 독거노인을 위해 5개 상품의 보증료 할인을 60%까지 확대한다.

해당 상품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차료지급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등이다.

HUG는 최우선 사회배려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정에 적용해온 보증료 할인을 현행 40%에서 60%까지 높였다. 또 만 65세 이상 홀로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위한 보증료 60% 할인 제도를 신설했다.

가령 전세금이 2억원인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한부모가정, 독거노인의 보증료는 약 10만원으로 연간 보증료(약 26만원) 대비 16만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 /채신화 기자



www.newsis.com

뉴스시스 공 | 감 | 연 | 론
NEWSIS

뉴스시스는 대한민국 뉴스의 허브(Hub)입니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를 비롯한 국내 주요신문과 포털·인터넷 매체 등 수많은 고객사가 뉴스시스와 손을 잡고 뉴스시스의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스시스가 전국 취재망을 통해 24시간 생산한 뉴스는 신문·잡지·인터넷 매체부터 정부기관 및 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배포되어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뉴스시스는 하루 평균 2700여 개 기사와 사진을 제공합니다



출고기사. 1200여개



사진기사. 1200~1500개

뉴스시스는 젊습니다

생각이 젊고 행동이 젊은 뉴스시스!

시장독점에 대해설립된 뉴스시스는 좀 더 능동적, 좀 더 적극적, 좀 더 공격적으로 세상을 바꿔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저심도 방식 조기 착공

이용섭 시장 공론위 권고안 수용
16년간의 길고 긴 논쟁의 마침표
내년 상반기 착공되도록 힘쓸 것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여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저심도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공식 천명했다.

이 시장은 12일 도시철도2호선 공론화 위원회로부터 최종 권고안을 전달받은 뒤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6년간의 길고 긴 도시철도 2호선 논쟁의 마침표를 찍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16년간 지역의 분열과 갈등의 중심에 있던 도시철도 2호선 논쟁을 오랜 국정 경험과 관록을 바탕으로 공론화를 통해 진정한 중지를 찍음으로써 광주형 협치행정의 성공모델을 만들었고 생활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시정운영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장은 “공론화위원회는 현재 일시



12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시장실에서 이용섭(왼쪽 두번째) 광주시장이 최영태(가운데) 광주시도시철도2호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게 시민 참여형 공론화 결과를 전달받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중단상태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재개할 것을 권고하였다”며 “9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시민참여단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도시철도 2호선을 당초 계획대로 건설하자는 찬성 의견이 78.6%였으며, 반대한다는 의견이 21.4%였다”고 소개했다.

이어 “공론화 과정이 다른 어느 지역 공

론화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된 만큼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며 “도시철도2호선을 저심도 방식으로 차질없이 건설할 것임을 150만 시민에게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공론화는 공정성·투명성·중립성이 생명이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

다”며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주관 부서를 교통건설국에서 시민소통기획관실로 옮기고 공론화위 구성 전에 도시철도 2호선 관련 용역을 중지시켰으며, 1박2일 속의과정에서 공무원 참여를 금지하는 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중단됐던 설계와 교통환경영향평가, 중앙정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내년 상반기에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건설 반대 측에서 제기했던 경제성, 안전성, 미래교통체계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 ‘안전·신속·친환경 명품도시철도’를 만들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취임 후 많은 분들의 염려와 걱정, 심지어 반대와 질책을 무릅쓰고 공론화를 추진했다”면서 “시간은 걸렸지만 일방적으로 건설을 밀어붙였을 때 예상되는 지역사회의 갈등 심화와 반대시위 등을 방지하고 광주 공동체가 분열없이 함께 가고 멀리 갈 수 있는 소중한 기반을 다

졌다”며 “위대한 광주시민과 함께 협치행정의 성공모델을 실현시키고 생활민주주의의 새 장을 연 것은 두고두고 큰 성과로 남을 것이며, 그 판단이 옳은 선택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정을 운영해 나갈 것이다”면서 “시민의견을 직접 묻는 것이 꼭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공론화 등 직접민주주의 방식을 활용하되 결코 남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의 미래와 더 나은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시민들께 정확한 정보와 뉴스를 전달해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은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용섭 시장은 마지막으로 “조심을 잃지 않고 항상 시민 여러분께 길을 묻고 지혜를 구하는 ‘경청 시장’이 되겠다”며 “신뢰와 연대의 터를 닦고 협치의 기본을 탄탄히 다져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꽃감 익어가는 산사의 가을
장성 백양사 사찰 처마 밑에서 꽃감이 익어가고 있다. 장성군은 1970년대까지도 꽃감시(市)가 열릴 정도로 유명한 ‘꽃감의 고장’이다. 지금은 백양사가 자리한 북하면, 북이면을 중심으로 많이 굵고 당도가 높은 ‘대봉 꽃감’을 연간 50억원 넘게 생산하고 있다. /장성군

목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 단속

목포시가 11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민관합동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와 연계해 판매시설, 전시장, 공연장, 집회장 등 다중이용시설 26곳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방해 행위, 주차표지 부당사용 및 위반조 등을 점검한다. 특히 12~13일은 전국 동시 일제단속을 실시하는데 목포시는 목포경찰

서와 함께 합동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불법주차자는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보행이 힘든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원유 기자 wonyoo9700@

광주시교육청, 예비초1 취학·소재확인 실시

초등학교 취학업무 설명회 개최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경찰청, 주민센터와 함께 내년 초등학교 1학년 취학 및 소재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일 광주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서 주민센터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취학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을 대비해 ‘취학아동명부 작성’ 및 ‘취학통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취학업무의 전체 흐름’과 ‘취학시기에 발생하는 사건사례’를 안내했다. 또한 ‘취학관련 질의응답’을 통해 주민센터 담당자들의 업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광주지방경찰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의 소재확인 방법과 경찰 수사상의 절차’, ‘아동학대(의심) 사례 발

생 시 절차’에 관한 설명을 통해 취학 전부터 아동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한 예비 학부모 입장에서 만들어진 ‘2019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절차 안내’ 자료를 마련해 주민센터가 취학통지 시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입학절차 안내 자료는 자녀의 첫 입학준비를 하는 예비 학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

시교육청 주연구 미래인재교육과장은 “모든 취학대상 아동이 손쉽게 입학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며 “단순히 취학을 높이는 단계를 넘어서 입학 이전 시점부터 꼼꼼하게 관리해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도록 촘촘한 지역안전망 운영에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이 마련한 ‘2019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절차 안내’에 따르면 2019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은 2012년 1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 사이에 태어난 아동(2018년 12월31일까지 만6세에 도달한 아동)이 대상이다. 여기에 취학의무 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도 포함된다. 신입생 예비소집일은 2019년 1월 9일(수)과 11일(금)이다. 예비소집 참석 시 주민센터가 배부한 취학통지서를 가지고 아동과 보호자(대리인 가능)가 함께 참석해야 한다.

대안교육시설, 홈스쿨링, 해외유학을 계획 중인 학부모님도 예비 소집에는 참석해야 자녀가 ‘미등록학생’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미등록학생’에겐 기관의 소재 확인과 취학 독촉 조치가 취해진다. 사정 상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못했다면 가능한 빨리 학교를 방문하거나 담당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조기입학과 입학연기는 올해 12월31일까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기입학은 201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이 신청 가능하다. /광주=봉채영 기자

인천시, 청소년 대상 불법영업 집중 점검

주류판매·유해업소 출입 등 단속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오는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종료되면서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및 주류 제공 등 각종 불법영업이 예상됨에 따라 30일까지 청소년 유해 식품점객업소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호프집, 소주방, 나이트클럽 등 청소년 출입 가능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시, 군, 구, 경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11개반 44명의 단속반을 구성·운영한다.

특히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여부, 청소년 고용 등 불법행위, 영업자가 식품의 조리판매 시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수능일 당일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에서 청소년 선도 홍보 캠페인과 식품의 위생적 취급, 식중독 예방요령 등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김석환 위생안전과장은 “수능능력시험이 종료되면서 청소년들이 해방감을 느껴 유해업소에 접할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외식업계 영업주들은 식품점객서비스 수준 향상과 청소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

담양군, 을 2억5000만원 복지 지원

담양군이 ‘행복도시 담양’을 위한 복지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2일 담양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350가구에 2억 5000만원을 지원, 복지사각지대를 좁혀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이혼, 질병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가구(1인 기준 125만4000원), 농어촌 재산기준(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이정희 주민행복과장은 “위기에 놓인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민간자원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좁혀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담양=봉채영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09 | 해질 / 17:23

11월 13일 (화)
음력 : 10월 6일

수도권 날씨 4 ~ 14°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지역별 날씨: 연천 0/14, 동두천 2/15, 가평 1/13, 파주 0/14, 서울 4/14, 양평 3/14, 인천 5/13, 수원 3/14, 용인 3/14, 평택 2/14, 백령도 8/13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건물주 반대에 설치 못한 스프링클러... 예견된 인재

종로 고시원 화재 참사

고시원 운영자 스프링클러 신청
건물주 동의 안해 설치 무산
시 "사유재산이라 강요 못해"
고시원 화재 사각지대 '재조명'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인근의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화재 참사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정 기자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인근의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화재 참사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 당국은 해당 고시원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화재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9년 7월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시원에도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은 2007년부터 영업을 시작해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 시는 법 개정 이전부터 운영돼 간이스

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고시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노후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일용직 근로자 등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다. 이를 통해 시는 총 222곳의 고시원에

34억원을 투입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22곳의 고시원에 1568개의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 고시원 한 곳에 약 70개의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셈이다. 화재가 발생한 국립 고시원 운영자도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에 신청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015년 고시원 운영자가 해당 사업에 신청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는데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아 사업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건물주의 동의 없이 시에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강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1일 화재 현장을 찾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고시원 화재사고는 이전에도 수차례 경고음을 울린 바 있다"며 "소방안전 대책은 화재에 취약한 노후 건물을 빼고 적용돼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 시행 이전에 문을 연 건물과 시설에 효력이 미치지 않았다"면서 "소방안전에 대한 기준 강화는 물론 소급 적용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월 화재안전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서울 시내 건축물 5만3682개 동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건축·전

기 분야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72개의 합동조사반을 꾸려 소방시설 작동 여부, 소방시설 관리 인력 등을 종합 점검해 화재 위험성 평가와 맞춤형 화재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국립고시원은 올해 진행되는 1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고시원 등은 내년에 실시되는 2단계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난 7월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1단계 조사 대상은 찜질방, PC방 등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 1만5682개 동이며, 2단계 대상은 지하상가와 학교라고 명시돼 있다. 또 시 소방재난본부의 '화재안전특별조사대상업종별 현황'을 보면 600㎡ 이상인 고시원 15곳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가 여러 종류"라며 "그중 고시원은 2단계에 포함돼 있다. 1단계 조사는 70% 정도 진행됐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수능 시험장 가는 길' 대중교통 전폭 지원

서울시 수능일 특별교통대책 마련 지하철·버스 증회, 비상수송차 지원



수험생수송지원차량 모습. /서울시

서울시는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수험생 편의를 위한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수능 시험은 15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치러진다. 서울에서는 11개 지구, 208개 시험장에서 13만여명의 수험생이 시험에 응시한다. 시는 수험생들을 위해 등교시간대 지하철 증회 운행, 버스 배차간격 최소화, 택시부제해제, 비상수송차량지원 등에 나선다. 우선 시는 지하철 집중 배차시간을 평상시 오전 7시~9시에서 오전 6시~10시로 2시간 연장한다. 이 시간 동안 지하철 운행 횟수를 28회로 늘린다. 승객 증가, 고장 지연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예비차량을 16편 대기시킨다. 시내·마을버스는 오전 6시~8시 10분까지 최소 배차간격으로 운행한다. 오전 4

및 뇌병변, 기타 휠체어 이용 1·2급 장애인 수험생이다. 등교시간대 교통혼잡에 대비해 자치구 공무원, 민간단체 봉사자 등 2800여명은 이른 아침부터 경찰과 함께 수험장 주변과 교통이동 주요지점에 배치된다. 이들은 비상수송차량 탑승, 교통질서 유지 등 수험생의 신속한 이동과 안내를 돕는다. 시는 수험생이 정숙한 분위기에서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험장 인근 공사장 소음 자제, 버스·택시 등 차량 경적 자제 등을 사전에 요청했다. 각 자치구는 시험장 주변을 순회하며 소음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시는 시험장 주변 반경 200m 구간의 차량 진출·입과 주차를 금지해 교통 혼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13만여 수험생들이 온전히 시험에 집중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교통편의를 지원하겠다"며 "응원 차원에서 수험장을 찾는 가족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일반 시민들도 교통대책 추진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정 기자



지하철 안전 홍보관 모습. /서울교통공사

7호선 반포역 '문화생활공간'으로 탈바꿈

서울교통공사 지하철안전홍보관 헬스&라이프케어존 등 선택

서울 지하철 7호선 반포역이 복합문화 생활공간으로 변신한다. 서울교통공사는 반포역 지하 1층에 헬스&라이프 케어존과 지하철 안전 홍보관의 문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헬스&라이프 케어존은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피트니스센터, 스터디 카페, 여행사 운영 여행 정보 카페, 무인 세탁소가 입점해 있다. 공사는 반포역 일대가 주거 밀집 지역인 특성을 고려해 역 상가를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개발했다. 키즈집도 들어설 예정이다. 지하철 안전 홍보관은 지하철 건설, 운영, 사고, 안전 시스템, 미래 안전 시스

템, 게임, 7개 테마존으로 구성됐다. 연면적 220㎡ 규모이다. 건설존에서는 하지 터널 지하철 구간의 입체 단면도와 2·4·5호선 환승역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구조모형을 볼 수 있다. 케도 실물, 안전시설 유물, 시대별 전동차 모형도 전시됐다. 서울 지하철 사고 유형도 연대별로 전시돼 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가 구축하고 있는 스마트 안전 통합상황실, 승강장 안전문 관제 시스템 등도 볼 수 있다. 안전 체험 오락기도 마련됐다. 디지털 시민안전체험관은 체험 설비를 확충했다. 공사는 이달 초 기관사 양성용 전동차 운전 체험기를 설치했다. 체험기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조됐으며, 운전 방식별로 3대가 설치됐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非유럽' 최초 국제도시조명연맹 회장도시 선출

서울시는 도시조명분야 세계 최대 글로벌 협력체인 '국제도시조명연맹(LUCI, Lighting Urban Community International)'의 회장도시로 선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아시아 최초이자 비유럽 도시 최초다. LUCI에는 전 세계 44개국 70여개 도시, 40여개 글로벌 기업이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다. LUCI는 세계 도시 간 조명정책과 신기술 등을 교류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글로벌 협력체다. 아시아에서는 서울, 오사카, 상하이 등이 활동하고 있다. 시는 2020년까지 전 세계 도시조명 정책과 기술을 선도하는 리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역대 회장도시의 주요 활동을 파악, LUCI 본부와 회장



LUCI 신입 회장단과 집행위원 모습. /서울시

도시의 역할 수행 방법, 범위 등을 사전 조율했다. 시는 LUCI 회장도시로서 2년 임기 동안 공식행사인 집행위원회의, 도시집중 탐구회의, 연례총회 등을 주재하게 된다. 국제기구·지방정부와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국제회의에 참석, LUCI 비

전과 도시조명의 중요성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시는 서울의 우수한 도시 조명정책을 국내·외에 홍보해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발전시켜 국내 조명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동북아 최고 '바이오의료 도시' 꿈꾼다

'바이오의료 국제 콘퍼런스' 개최
미래 혁신성장 동력인 바이오의료 산업의 육성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14일 오전 10시 시청 다목적홀에서 '2018 서울 바이오의료 국제 콘퍼런스'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 주제는 '바이오 스타트업의 중심지, 서울'이다. 콘퍼런스에서는 동북아 최고의 바이오 벤처 도시에 도전

하는 서울의 미래전략과 바이오 창업 성공을 위한 기술혁신, 투자유치 전략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세계 최대 바이오의료 분야 투자기업 오비메드의 에레즈 치모비츠 투자총괄이 '글로벌 바이오 혁신 창업 트렌드 및 전략'을 주제로 기조 연설한다. 이후 존슨앤드존슨 이노베이션 아시아태평양 총괄대표인 댄 왕이 '바이오 혁신의 가속화를 위한 글로벌 모델'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현정 기자



[산업]
한화큐셀,
스웨덴에 태양광모듈 공급
유럽 태양광 공략 가속
06



[혁신도시]
aT
국산 농식품
해외수요 확충 총력
08



이웃과 더불어 지역과 함께 전국 1.5만개 플랫폼... 거미줄 '나눔 물결'



GS리테일

GS리테일은 '이웃과 더불어 지역과 함께'라는 방향성을 바탕으로 사회 소외계층, 지역 진화활동과 재해·재난 구호지원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사회공헌활동 기반은 바로 전국에 분포한 오프라인 플랫폼이다. 편의점 GS25 1만 3000점, GS수퍼마켓 300여점, H&B(헬스앤뷰티) 스토어 라라블라(Lalavla) 180여점과 더불어 전국 물류센터, 각 지역 사무실 등이 폭넓은 인프라 시스템의 바탕이 됐다.

이를 통해 GS리테일은 사회 안전망 구축, 재해·재난 구호지원활동, 각종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들을 손쉽게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사회 소외계층 지원활동

GS리테일은 지난 2006년부터 'GS나눔미' 활동을 펼치고 있다. 'GS나눔미' 봉사단은 전국의 52곳 점포를 기반으로 매달 보육원이나 양로원 청소, 노숙자 배식, 소년소녀가장 공부도우미, 연탄배달, 김장하기 등 우리 사회의 가까운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GS리테일의 임직원 가족, 고객, 가맹 경영주들의 참여도 가능하다.

현재까지 GS나눔미에 참여한 총 봉사활동 참여 누적인원은 4만 8378명으로 곧 5만 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참여 인원이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에서도 고무적이다. 지난해 봉사활동 총 참여 인원은 6200여 명으로 이는 전년 대비 11.6% 증가한 수치다.

꾸준한 봉사활동은 수상으로도 이어졌다. 지난 2015년 GS리테일 건설부문 GS나눔미가 서울 사회복지대회 서울시장상을 수상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 10월에는 GS25 중부권 경영주 협의회로 구성된 GS나눔미가 전국 사회복지 나눔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GS리테일은 봉사활동 우수자를 추천받아 지난 2016년부터 캄보디아, 베트남 등 해외봉사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GS리테일은 동종 업계 최초로 생식품을 푸드뱅크에 기부하는 '푸드뱅크 식품 기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국 GS수퍼마켓 매장에서 매일 채소, 과일, 우유 등 생식품을 각 지역 푸드뱅크에 기부하는 것이다. 지난 2011년 시작된 식품 기부 활동은 취약 계층의 생존과 직결되는 식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실효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연간 약 5억 원 수준이다. GS리테일은 식품 이외에 생활용품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며 매년 더 많은 기부활동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밖에도 2011년부터 실시한 '사랑의 북드림 캠페인'을 통해 현재까지 총 6만 여 권(약 2억 원 상당)이 지역 사회 도서관 및 해외 각국 소외 아동들에게 전달됐으며, 헌혈 캠페인과 백혈병 소아암 환자를 위한 활동도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

◆재해재난 구호활동

GS리테일은 태풍, 홍수, 지진, 산불 등 재해재난이 발생할 시, 구호물품을 지원하



GS리테일의 'GS나눔미' 봉사단.



GS리테일의 'GS나눔미' 봉사단이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GS리테일의 'GS나눔미' 봉사단이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GS25 역삼상점의 김재수 근무자(우측)가 점포 안에서 영업담당자와 환하게 미소짓고 있다.



GS리테일 물류센터에서 가산동 주민들을 위한 긴급 구호물품을 싣고 출발하고 있다.



GS수퍼마켓 하남점 관계자(우측)가 푸드뱅크 관계자에게 식품을 전달하고 있다.

전국 분포된 오프라인 플랫폼 이용 사회 안전망 구축·구호 지원활동

52곳 점포 기반 'GS나눔미' 봉사단
지역 푸드뱅크에 식품 기부 활동 등
가까운 이웃 위한 다양한 나눔 힘써

행안부·보건부와 업무협약 체결 구호물품 지원·자활자 자립 도와

고 있다.

GS리테일은 지난 9월, 보다 체계적인 구호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재난 예방 및 구호물품 지원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정안전부와 MOU를 통해 GS리테일은 연간 5000만 원 상당의 구호물품 지원, GS25 편의점 긴급 대피소 및 긴급 물품 지원 사이트로 활용, 생존배낭 기부 등 다양한 재해재난 구호 및 예방활동에 더욱 체계적으로 동참하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MOU 이전에도 GS리테일은 재해 재난 발생 시 전국 물류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구호물품을 전달해 왔다.

GS리테일은 지난 5월 강릉 산불 피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구호물품을 전달했으며, 지난해 1월과 9월에는 폭설로 인해 제주공항에 발이 묶인 여행객들과 울릉도 폭우로 인한 피해 지역에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 또 2014년 진도군 상설시장 화재 피해, 2012년 태풍 볼라벤과 덴빈 피해, 2011년 춘천 폭우 피해, 2010년 연평도 포격 피해 등 재해 재난이 다친 지역에 신속하게 구호 물품을 전달해 원활한 복구 활동을 지원해왔다.

◆자활 일자리 창출 지원활동

GS리테일은 이웃들에게 단순히 도움의 손길을 제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GS25 내일스토어'는 지난 해 6월 GS리테일과 보건복지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해 저소득층 자활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확대하고 있는 사회공헌형 편의점이다.

'내 일(My job)'을 통해 만드는 행복한 내일(Tomorrow)'이라는 의미를 지닌 GS25 내일스토어는 GS25 본부가 점포를 개발해 제공하고, 보건복지부는 점포 운영을

지원하며,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인 지역자활센터는 점포 운영을 위탁 받아 내일스토어를 운영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자활 참여자의 자립을 돕는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인 지역자활센터가 GS25 내일스토어 운영을 위탁 받아 저소득층 참여자와 함께 점포를 운영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자립을 돕는 것이다. 지난 4월, 'GS25 내일스토어'에서 근무하던 자활 참여자가 최초로 GS25 점포를 오픈하는 첫 사례가 탄생하며 지역사회 저소득층의 새로운 창업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GS리테일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추천한 중증장애인을 GS25 직영점의 스토어매니저(근무자)로 채용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니어인턴 제도에 참여해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GS리테일은 단순한 일회성이 이벤트를 지양하고 꾸준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며 유통업계 기업 사회공헌의 선순환 모델로서 자리매김 하고자 한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사진=GS리테일